

(재)공공상생연대기금
2025년 교육 연구 지원사업

공공 재생에너지의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 교육 프로젝트

연구보고서

60플러스기후행동 ×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Korea Federation of Power Industry Unions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제출문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공공 재생에너지의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 교육 프로젝트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1월 30일

연구수행기관	60플러스기후행동 ×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연구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박태주 (60플러스기후행동 상임대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보고서 요약서

연구사업명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교육 연구 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공공 재생에너지의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 교육 연구
연구책임자	박태주 (60플러스기후행동 상임대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60플러스기후행동 ×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요약문	<p>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60+기후행동이 컨소시엄으로 수행하였고, 에너지 정의행동과 와이즈서클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는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해 노동조합과 기후단체 간 연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민 교육 연구입니다.</p> <p>기후위기 대응 및 노동 참여 기반의 전환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과정에 노동조합과 기후환경 시민단체가 ‘교육’을 매개로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높이고, 향후 공동실천과 캠페인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내 최초의 노동-기후 연대운동 시도로서, 참여형 방식(U 프로세스, 서클 프로세스 등)을 활용하여 기본과정 4모듈 총 12시간, 심화과정 3모듈 총 10시간의 참여형 워크숍 교안을 작성하였습니다.</p> <p>시범 워크숍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 및 대응의 시급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실현의 중요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공공 주도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서로가 대화하며 노동과 시민의 공통된 가치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향후 노동-기후 연대 구축의 선도적 모델로 활용 가능하며, 다양한 부문에서 확장 적용될 전망입니다.</p>
핵심어 (5개 이내)	공공재생에너지, 정의로운전환, 참여형 교육, 노동-기후 연대운동

요약문

1. 제목

공공 재생에너지의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 교육 연구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최종보고서는 전국전력노동조합연맹과 60+ 기후행동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수행한 노동·시민 교육 프로젝트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의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과 기후시민단체의 연대 형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노동운동과 기후시민운동 사이의 '운동을 가로지르는'(교차운동) 교육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취지는 기후위기의 실상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노동조합 간부와 기후활동가들이 워크숍 형태의 공동교육을 진행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단순히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노동참여의 전환 거버넌스 형성'**이며, 이는 노동자들이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하여 고용 보장 등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후정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기후 연대의 필요성은 학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이는 노동조합에게는 공동실천을 통한 사회적 정당성 확보와 **녹색 노조주의(green unionism)**를 통한 노동운동 재생의 가능성을 도모하고, 기후단체에게는 기후운동의 대중적 기반 확보 및 체제 전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프로젝트 추진 방법 및 교육 방식의 특징

본 프로젝트는 문헌 조사, 관련자 면담 및 집단면접(FGI) 외에, **1박 2일 시범 워크숍(총 12시간)**을 통해 교육기획안의 적절성을 시험하고 최종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강의식 지식 전달 방식을 벗어나, 교육 내용이 참여자들에게 '체화되도록 돋는' 참여형 방식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교육 목표인 '연대 구심점 마련'에 가속도를 더하기 위해 성찰적 자기인식, 다음에 대한 이해, 민주적 참여 태도 정립 등의 내재화를 유도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교육 방법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법들이 활용되었습니다.

- U 프로세스: 기존의 '얕은 듣기'에서 **'깊은 듣기'**로 이행하며, 개인의 자기 성찰과 발견으로부터 미래를 향한 실천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 서클 프로세스: 둥그렇게 둘러앉아 모두가 동등한 힘과 권한을 지닌 채 대화하며, 유대감과 일체감을 형성하고 집단적 몰입을 고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AI(Appreciative Inquiry) 강점 탐구 인터뷰: 보완해야 할 단점보다 핵심 강점과 긍정적 경험에 집중하여 미래 창조를 위한 구성원들의 방향성과 에너지를 형성하도록 돋는 접근법입니다.

교육 환경 조성(도구 및 장치)에도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 책상 없이 의자만 원형으로 배치하여 서로의 언어/비언어적 신호가 배움의 재료가 되도록 했습니다.
- **'그라운드 룰'**을 설정하여 빠른 판단이나 평가적 피드백을 보류하고, 관대하고 안전한 배움의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 **토킹스틱(말하기 도구)**을 사용하여, 이를 가진 사람만 말하고 나머지는 경청하는 시스템을 통해 동등한 발언권을 보장했습니다.
- 주제 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권위 있는 발언 대신 영상을 시청으로 오프닝을 대체했습니다.

4. 연구결과

○ 기본과정 프로그램 구성 및 활동 내용

1차 워크숍인 기본과정은 총 4개 모듈, 12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듈	주제	주요 활동 및 목표
제1모듈	대화와 소통, 공감의 형성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노동/기후 운동)을 이해하며 공통점을 확인. 동심원 대화, 믹싱 대화 활용.
제2모듈	노동조합/기후단체가 바라보는 상대 운동	상대방 운동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 증진. 내집단 대화 ('만남을 준비하는 몸 지도' 작성) 및 어항 대화 (노동-기후 분리 서클에서 상호 질문과 주의사항 공유)를 통해 벽을 뚫는 소통 시도.
제3모듈	노동과 기후는 왜 만나야 하는가	연대의 필요성 공동 모색. 스펙트럼 대화를 통해 석탄 발전소 폐지 속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숫자로 확인하고 토론 후 최종 입장의 변화를 관찰.
제4모듈	노동과 기후는 어떻게 만나는가	공동실천 및 연대체 형성 방안 모색. 소그룹 작업을 통해 가상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10년 뒤 정의로운 전환이 일어난 모습을 구상하는 로드맵을 도출.

○ 시범 교육의 성과 및 참가자 평가

시범 워크숍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서로가 다르지 않다는 공통된 가치를 확인하고, 역지사지의 경험을 얻었으며, 상대를 더욱 듣고 싶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기후는 노동이고, 노동도 기후랑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얻었으며, 기후위기가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복지, 지역, 그리고 우리 삶 전체의 문제임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제3모듈의 스펙트럼 대화 결과는 교육 효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참가자들이 석탄발전소 폐지 속도에 대해 처음 적었던 극단적인 숫자(0~2점 또는 9~10점)가 토론과 자기 견해 공유를 거친 후 4점, 7~9점으로 거리가 좁혀진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고려사항에 관한 공감대가 더욱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4모듈 소그룹 작업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주요 제안으로는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지자체·노조·시민단체·주민·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성, 관광, 돌봄, 스타트업 등 대체 산업 육성, 고용 보장 및 직업 훈련 연계 (폴리텍 대학 연계 포함)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기후난민이나 이주노동자 가족 수용을 포함한 도시 구상 및 에너지 산업 취업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도 논의되었습니다.

○ 심화과정 (후속 계획)

심화과정은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연대의 형성에 중점을 둡니다. 최종 보고서 내에는 4개 모듈/총 12시간으로 계획된 초기 구성안과 3개 모듈/총 10시간으로 세부 활동이 설계된 계획안이 모두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 재생에너지 현황 및 확충 방안 (현장 답사 포함),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방안 (하청 노동자 증언 청취 포함), ▲공동실천 및 공동 캠페인 방안 모색 등입니다.

제2차 워크숍 (심화과정):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연대의 형성

구분	주요 주제	활동 내용 및 목표	구체적인 활동 방법
총괄	심화과정 (4모듈/12시간 또는 3모듈/10시간)	공공 재생에너지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노동·기후시민 단체의 연대를 구체화하고 형성함.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방식, 토의/토론식 수업, 현장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시간 활용.
제1모듈 (3시간)	공공재생에너지 를 어떻게 확충 할 것인가	기후위기의 실상, 공공재생에너지 현황 및 필요성을 확인하고,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함. 위험 요인들 (risks)을 다룸.	기사 함께 읽기 (재생에너지 현황 및 공공성 확보 관련). 월드카페 (재생에너지 확보, 발전사 공기업 통합, LNG 발전 관련 브레인스토밍). 대화의 4 플레이어 (쟁점 이슈를 선정하고 찬성/반대/중립 입장에서 숙고하며 투표를 통해 최종 합의 확인).
제2모듈 (4시간, 분할 진행)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실현할까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을 논의하고 실현 방안을 모색함. 특히 현장(하청)노동자 증언을 통해 목소리를 청취함.	재생에너지 현장 답사 (태양광/풍력) 및 현장 관계자 질의 응답. 현장 다큐 시청 (폐쇄 사례, 하청노동자 증언 영상). 오픈 스페이스 (사회안전망 확보, 재교육, 하청구조, 민주적 거버넌스 등 관심 키워드별 대화). 동맹 서클 ('정의로운 전환' 실현 관련 주장 및 동지 확인). 시간관리 매트릭스 (실행 아이디어를 시급성과 중요성으로 분류). 만다라트 (시급하고 중요한 아이디어에 대한 단계적 목표 와 실행 프로세스 구상).
제3모듈 (2시간)	연대체의 형성 및 공동실천과 공동캠페인 방안	공공 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기후연대의 현황을 확인하고, 연대체 형성 및 구체적인 공동 캠페인 방안을 모색함.	엘리베이터 대화 (일반 시민 대상 캠페인 메시지 전달 연습). 연대 시스템 구축 (공동실천 및 캠페인 아이디어 투표 선정, 그룹별 비전 및 첫 행보 구상, 신뢰 관계 구축 논의). 전체 평가 ('해-바다-배-구름'을 활용한 평가 활동).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본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과 기후단체가 공동교육 활동(워크숍)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확보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연대'의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연대'는 기후단체와 노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의 보전'을 충돌하는 개념이 아닌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고 추진한다는 사실을 의미함
- 특히 본 프로그램은 현재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집중되고 있는 발전부문(전환부문)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음.
 -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발전부문은 물론 앞으로 기후대응이 진행될 다른 부문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 즉 노동-기후연대를 위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본 프로그램은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형식을 지향하였음.
- 본 프로그램은 강의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참여형 교육방식을 도입하였음.
 - 이는 향후 노동조합과 기후단체에 대해 기존의 강의식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형 방식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교육방식의 구성방안과 질문, 그리고 사진 영상을 제공하고 있음.
- 본 프로그램은 향후 참여기관(전국전력노동조합연맹, 60+ 기후행동)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노동-기후 연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2026년에는 석탄화력발전부문 노동조합과 기후활동가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연대 프로그램'으로서 2박 3일의 공동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은 물론 필요하면 교육 진행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목차

〈요약〉

제 I 부 연구의 개요

1. 프로젝트 개요 — 9p
2. 프로젝트 추진방법 — 10p
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시민교육의 취지 — 11p
4. 주요 연구내용 : 노동참여의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구축과 노동-기후 연대의 형성 — 11p
5. 제안의 목적 — 12p
6.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12p
7. 기존 교육과의 차이점 및 특징 — 13p
8. 주요 교육내용 — 14p

제 II부 정의로운 전환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출장 보고

1. 출장 목적 — 15p
2. 출장 자료 — 15p
3. 시사점 및 현안 문제 — 18p

제 III 부 노동·시민교육 프로젝트 작성을 위한 워크숍

1. 워크숍 개요 — 19p
2. 교육 방식 — 20p
3. 제1일차 프로그램 진행 — 25p
4. 제2일차 프로그램 진행 — 32p
5. 종합평가 — 37p

제 IV 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동·시민교육 프로그램

1. 기본 과정 및 심화 과정 프로그램 구성 — 40p
2. 시설 및 교육 보조재 — 48p
3. 참고문헌 — 49p

제 I 부 연구의 개요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명

- 공공 재생에너지의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 교육 프로젝트 실행 제안서

□ 프로젝트 수행기관(컨소시엄)

-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 60+기후행동

□ 연구 참여자

- 연구수행자
 - 연구책임자: 박태주 (60+기후행동 상임대표)
 - 연구원
 - 노유근 (전국전력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 강익구 (60+기후행동 운영위원)
 -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연구위원)
 - 이은주 (와이즈서클 대표)
- 자문위원: 전력 관련 노동조합과 기후시민단체의 활동가
 - 김건우(참여연대 정책기획국 팀장)
 -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 이동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남태섭(전력연맹 사무처장)
 -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 정세은(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

□ 연구 일정

- 1~3월: 자료 수집 및 프로젝트 수행계획 확정(연구방식 및 역할 분담 포함)
- 3월~6월 1일: 시범교육 준비(인원모집, 운영방안, 자료집 제작 등)
- 6월 12일(목)~13일(금): 시범교육(1박2일)
- **2025년 7월 2일: 중간보고**
- 7~8월: 시범교육 평가
- 9~11월: 최종 교육프로그램 작성(10월 1차 보고서, 11월 2차 보고서)
- **2025년 11월 28일 최종 보고서 제출**

연구내용	2025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문헌 검토 및 연구진 회의, 인터뷰												
○ 시범교육 준비 및 실시												
○ 시범교육 평가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프로젝트 추진방법

□ 본 프로젝트의 특징

- 본 프로젝트는 노동조합 간부와 기후활동가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노동조합 간부와 기후활동가 워크숍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함.
 - 특히 교육방식은 기존의 강의방식을 통한 지식전달식 수준을 넘어 교육내용을 체화하도록 돋는 다양한 참여방식을 도입함.

□ 프로젝트 연구방법

- 문헌 조사와 함께 관련자 면담조사 및 집단면접(FGI), 그리고 시범학습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함. 특히 시범학습을 1박2일(12시간) 워크숍 형태로 진행할 예정임. 이를 통해 교육기획안의 실행 여부와 장단점을 파악해 최종 프로그램 기획안에 반영하고자 함.
 - 문헌 조사는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동향, 국제기구 및 해외의 대응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효과, 해외의 노동-기후 연대의 현황, 노동조합의 대응 등을 포함함.
 -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발전공기업노조, 하청노조 등)와 기후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인터뷰와 함께 집단면접을 수행함.
 - 사전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적절성을 시험하기 위해 2025년 6월경에 참여단체 간부를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시범교육을 위해 사전적으로 관련 자료집을 배포함.
 - 시범교육 결과를 평가해 최종적인 보고서를 작성함.

□ 프로젝트 교육방법

- 교육 내용이 전달하는 중요 가치를 교육 방법에 녹이기
 - 지식과 정보의 전달 수준을 넘어 '교육내용을 체화하도록 돋는' 교육방식을 택함. 이는 해당 교육 목표인 '연대 구심점 마련'에서 가속도를 낼 수 있는 방식임
 -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이 담고 있는 가치를 참여자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성찰적 자기 인식, 다른에 대한 이해, 소외와 배제 없는 상생적 문제해결 방향 중시, 민주적 참여 및 의사결정을 위한 태도 정립' 등의 내재화를 유도하는 장치들을 마련함
- 자기발견 및 자기반성적 배움
 - 참여자들의 생각과 행동, 태도의 변화를 꾀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한 메타인지(meta-cognition) 훈련식 학습 방법 도입. 이슈에 접근하는 태도와 그것을 다루는 인식체계를 재점검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해당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마인드셋(mind-set) 함양
 -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자기 언어화하고 경청자 앞에서 이를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생각을 좀 더 명료화하고 진실을 분별해 내는 역량을 강화함. 자기발견 및 자기반성적 배움을 위해 서로를 향한 빠른 판단이나 평가적 피드백

을 보류하는 규칙 적용

- 이는 '집단 지성 창출'에 있어 큰 동력으로 작동함과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을 스스로도 준비하도록 활동가들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임
- AI(Appreciative Inquiry) 강점 탐구 인터뷰, 공감경청 대화 등의 도구 사용

○ 집단 지성 도출

- 집단 문제를 다룰 시, 개별적 학습 결과들을 묶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속에서 함께 숙고하고 학습할 때 발생하는 교육적 효과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나'를 넘어 '우리'를 고려하는 확산적 사고 함양을 위한 성찰적 질문과 경청 과정, 집단 역동성을 고려하여 집단적 몰입을 고도화하는 진행 도구 및 기술 적용.
- U 프로세스, 서클 프로세스, 디자인 씽킹 전략 및 도구 사용

3.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동·시민교육의 취지

○ 노동조합 간부와 기후활동가들이 워크숍 형태의 공동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실상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보함.

-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 재생에너지의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의 연계성에 주목함.

○ 에너지 전환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동·시민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함

-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은 정의로워야 하며 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음. 정의로운 전환은 그 결과가 정의로워야 할 뿐 아니라 특히 과정이 정의로울 필요가 있음. 과정의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노동참여의 전환 거버넌스 형성'이라고 할 수 있음.

○ 노동·시민연대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공동으로 모색함.

-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기후운동과의 연대, 기후활동가 관점에서 노동조합과의 연대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토론함.
- 노동조합과 기후운동 사이의 연대 전략을 모색하고 해외 연대사례를 검토함.

○ 노동·시민연대의 토대 마련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식의 모색

- 강의 및 질의·응답 방식을 탈피하여 숙의와 토론을 통한 상호이해의 증대를 꾀함.

4. 주요 연구내용: 노동참여의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구축과 노동-기후 연대의 형성

○ 전환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기후시민단체가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사회적 대화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권우현, 2023; 박태주·이정희, 2023).

- 실제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후정의'라고 규정하고 있음(제2조)
- 특히 노동자들은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전환의 주체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고용의 보장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음.

○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구축과 노동의 참여는 기후위기 해결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조합과 기후시민단체 사이의 연대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함,

○ 결과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기후연대를 통한 탄소중립의 실현과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의 확보,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5. 제안의 목적

- 본 프로젝트 실행 제안서에서는 노동조합과 기후시민단체의 합동교육을 통해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한 노동과 기후시민단체의 연대 형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배움(교육)을 매개로 노동조합과 기후시민단체 사이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과 기후시민단체의 연대는 학술적으로는 물론 실천적으로도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음.
 - 학술적으로 노동-기후연대의 필요성과 실천적 현황을 서술한 글은 적지 않음(Stavis et al., 2018; Wilgosh, 2022; Mayer, 2009).
 - 실천적으로는 미국의 Blue-Green Alliance와 Just Transition Alliance, 영국의 Climate Justice Coalition, 독일의 기후동맹(Klima-Allianz), 그리고 캐나다의 CLC-CAN 협력(collaboration)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양대 노총이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고 기후정의동맹 혹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는 등 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층차원의 느슨한 연대에 머물고 있음.
 - 업종 단위에서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노사, 2005년~), ‘민영화 저지·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2023) 등이 있으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선언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음.
- 노동조합은 물론 기후시민단체도 양자 사이의 연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먼저 노동조합은 기후시민단체와의 공동실천을 통해 노동조합 요구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함.
 - 또한 노조는 사회적 노조주의, 구체적으로는 녹색 노조주의(green unionism)를 통한 노동운동의 재생(renewal)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음.
 - 한편 기후단체는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해 기후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나아가 체제전환을 위한 주체의 설정과 전략 및 로드맵 설정을 가능케 해 전환의 실현 가능성(achieveability)을 높임
- 결론적으로 이 과제는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공통의 가치’를 발견하는 노동조합-기후단체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되 그 기반으로서 공동의 교육을 배치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본 교육 프로젝트에서는 공동 워크숍을 통해 노동조합과 기후시민단체의 상호 이해와 인정, 공감대의 형성을 바탕으로 공동실천의 기획과 연대체의 결성을 모색하고자 함.

6.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본 프로그램 참여단체(60+기후행동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는 에너지 전환, 특히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기후시민단체의 연대체 구성에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노동-기후연대체의 사업계획과 활동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연대체 형성의 저변을 형성하고 확대하는 효과를 가짐.
- 노동-기후단체의 연대를 위한 상호 이해의 증진과 공감대의 형성, 그리고 공동실천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노동-기후 연대체 형성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프로그램의 연구결과는 향후 노동조합 및 기후시민단체의 공동 교육은 물론 노동조합과 기후시민단체 각각의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음
 - 노동조합과 기후시민단체에 자료 공개

7. 기존 교육과의 차이점 및 특징

- 본 교육 프로젝트의 특징으로서는 △‘노동–기후 연대체의 형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사업이라는 점과 함께 △노동·시민 공동교육에 대한 참가자의 확정, △교육내용으로서 공공 재생에너지의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연대의 필요성, 그리고 △교육방법으로는 학습자 중심의 참여식 방식을 도입 등을 강조하고 있음.
- 첫째, 본 연구가 기획하는 합동 교육은 공공 재생에너지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기후시민단체의 연대체 결성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있음.
 - 프로젝트 참여단체(60+기후행동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는 2023년 10월 이래 다른 기후시민단체(침여연대, 녹색연합, 민변, 에너지정의행동 등)와 함께 공동 회의(9회)와 공동토론회(2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동 실천과 연대체 형성을 논의하여 왔음.
 - 이들 기후시민단체 활동가는 이번 프로젝트에 연구원 혹은 개인 차원의 자문위 원으로 결합하고 있음.
- 둘째, 교육내용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떠나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충과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연대의 형성에 초점을 맞춰 편성할 예정임.
 - 교육 프로그램은 노동조합과 관련 기후·시민단체 활동가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임
 - 한 차례의 시범 교육(1박 2일 워크숍)을 실시해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시험하고 부족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해외의 ‘노동–기후 연대’사례를 발굴하여 공동 실천과 함께 연대체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함.
- 셋째, 교육방법은 강의식·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함
 - 적극적인 참여와 논쟁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적인 소통과 공감의 형성을 도모함.
 - 패널토의, 브레인스토밍의 활용 등 특정 주제에 대한 토의·토론식 수업을 진행함(최정임 외, 2024 참조).
 - 학습자 스스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문제해결 기법들을 사용하고자 함.
- 참여형·토론식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참고자료를 참가자에게 배포할 계획임.
 - 참고자료에는 △기후위기 및 에너지 현황, △공공 재생에너지 확보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노동조합과 기후시민단체의 관계, △갈등관리방안, 그리고 △연대의 주요 원칙 및 해외 사례 등을 포함할 예정임.
 - 뿐만 아니라 주요 교육방식으로서 서클 프로세스, U 프로세스 등의 방식에 대한 설명을 덧붙임.
- 넷째, 시범교육은 1회에 걸친 워크숍 형태(1박 2일)로 진행할 계획임.
 - 참가자들은 사전에 참고자료를 통해 선행 공부를 하고 워크숍 중에는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 방식의 교육으로 진행 할 예정임.
- 본 교육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노동운동과 기후시민운동 사이의 ‘운동을 가로지르는’ 교육(교차운동 교육, cross-movement education)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음.



8. 주요 교육내용

- 교육은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으로 진행하며 총 8개 모듈로 진행할 예정임.
 - 제1차(기본과정) 4개 모듈/ 총 12시간, 제2차(심화 과정) 4개 모듈/ 총 12시간
 - 참여대상은 노동조합 간부 및 시민기후단체 활동가들(20명 기준)임

- 제1차 워크숍(기본과정) : 대화와 소통, 공감의 형성
 - 제1모듈(3시간): 자신을 드러내기, 상대방을 이해하기
 - “나는 누구인가?”
 - “우리 현장 보여주기”
 - 제2모듈(3시간): 노동조합이 바라보는 기후운동, 기후단체가 바라보는 노동운동
 -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 운동”
 - 기후위기 대응 모습 마주하기
 - 제3모듈(3시간): 노동과 기후는 왜 만나야 하는가, 만날 수 있는가
 - “우리는 왜 기후위기 앞에서 만나야 하는가?”
 - 노동조합이 기후시민단체를 만나는 이유, 기후시민단체가 노동조합을 만나는 이유
 - 제4모듈(3시간): 노동과 기후는 어떻게 만나는가
 - 외국의 노동·기후연대 사례
 - 공동실천 그리고 연대체의 형성
- 제2차 워크숍(심화과정) :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연대의 형성
 - 제1모듈(3시간): 기후위기의 실상,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기후위기의 실상과 공공재생에너지 현황,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의 실상과 그것이 가져오는 위험요인들(risks)
 -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제2모듈(3시간): 공공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 “공공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 재생에너지 현장 답사(태양광/ 풍력) 및 현장관계자 질의 응답
 - 제3모듈(3시간): 정의로운 전환이란 무엇인가
 - 현장노동자 증언청취(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 정의로운 전환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실현하는가
 - 제4모듈(3시간): 공공재생에너지 확충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기후시민단체의 연대
 - 공공 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기후연대의 경과 및 현황
 - 연대체의 형성 및 공동실천과 공동캠페인 방안

제II부 정의로운 전환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출장 보고

- 일시 : 2025년 4월 24일~25일
- 방문 기관 : 충남도청, 서부발전 본사(태안),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서부발전노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모임(정태모)

1. 출장 목적

- 태안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각 주체들(지자체, 발전소, 원·하청 노동조합 등)의 대응 방안 청취

※ 서부발전(태안)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태안 1호기(2025년), 태안 2호기(2026년), 태안 3호기(2028년), 태안 4호기(2029년), 태안 5,6호기(2032년)

〈참고표〉 제11차 전기본 석탄발전 설비 계획

11차 전기본 석탄발전 설비 계획		
연도	발전설비	설비용량(MW)
2024	삼척블루파워1호기	1050
2025	삼척블루파워2호기	1050
2026	평택1&2&3호기, 태안1호기	-1550
2026	하동1호기, 보령5호기, 태안2호기	-1500
2027	삼천포3&4호기, 보령6호기, 하동2&3호기	-2620
2028	삼천포5호기, 태안3호기, 하동4호기	-1500
2029	동해1&2호기, 삼천포6호기, 태안4호기, 당진1&2호기	-2400
2030	당진3&4호기	-1000
2031	하동5&6호기	-1000
2032	태안5&6호기	-1000
2034	영흥1&2호기	-1600
2036	당진5&6호기	-1000
2037	당진7&8호기, 태안7&8호기	-2000
2038	보령3&4호기, 영흥3호기, 보령7&8호기	-2920
합계 신규 2기, 노후폐지 40기		

2. 출장 자료

(1) 충남도청

- 충남도청 방문 목적은 태안화력발전소 폐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담당 부서와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 충남도는 탄소중립 정책에 관해 나름 다른 지방정부보다는 앞서 있다고 자부. 다른 지방정부와는 달리 탄소배출 관리 위주의 탄소중립과(환경 부서)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제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탄소중립경제과의 조직을 예로 들고 있음.

○ 면담

- 박정환 협력총괄과 과장
- 남승홍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장
- 윤청수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 팀장
- 이원복 일자리기업지원과 팀장

<주요 발언 내용>

- 금년 말로 폐지되는 태안화력 1~2호기와 관련 협력업체 종사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해 대처하고 있으며 우선은 충남도 자체적으로 10조 정도의 기후기금 조성을 제안해 놓은 상태.
 -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의 빠른 입법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
- 자체적으로는 충남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 자동차부품산업.서비스산업.디지털 전환 부문 등 8개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중.
 -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노동전환특별위원회'를 두었으며, 제1기 노동전환특별위원회에서는 주로 자동차부품산업 중심의 의제를 다루었고, 태안화력 폐지 결정에 따라 제2기부터는 발전산업부문까지 확대.
 - 충남도는 이 위원회가 사회적 거버넌스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조례에 따라 '노동전환지원위원회'를 발족했고, 실무를 위해 산하에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립.
 -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가 위탁 운영하며, 작년에 담당자 2명과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4명으로 2인을 더 충원.
- 이런 협의체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별도로 정책간담회 성격의 노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추천 인사도 포함한 자문단도 함께 운영.
- 탄소중립경제과는 기후.환경보다는 에너지산업 중심의 경제부서였는데, 태안군 살림살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태안화력 폐지에 따라 부서명칭만 에너지경제과를 탄소중립경제과로 바꾼 듯했고, 구조조정 문제는 일자리기업과 노동정책팀에서 전담하고 있음.

(2) 서부발전 본사

○ 면담

- 이재수 기획처 에너지전환지원단장
- 송승남 인재경영처 노사협력실 실장

※ 브리핑은 PPT로 할 예정이었으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내부자료인 프린트물로 대체함

○ 에너지지원단장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주요 설명

1) 태안화력 대체 건설계획

- 1~6호기가 33년까지 폐지됨에 따라, '동일용량 동시대체'의 원칙을 기반으로 6기의 LNG화력을 구미(산단), 공주(산단), 여수(공단), 아산(신도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역, 즉 대규모 전력수요처 인근에다 건설을 추진

2) 태안화력 폐지 초기 근무자 조치

- 발전기 정지 이후에도 공용설비 가동과 폐지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안전, 보안 측면에서 관리인력 상주 필요

- 발전 정규직은 필요 상주 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 건설인력으로 배치 전환.
- 1차 벤더 : 전국을 커버하는 기업들이어서 자체적 배치전환이 가능하며, 이들 기업의 종사자들 일부는 경상 유지보수를 위해 상주 필요.

3) 에너지전환지원단 구성 운영

- 발전사 부사장(사업 및 기술안전 담당)과 태안군 부군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매월 TF회의를 가짐.
- 핵심이슈별 대 분과 구성 및 전문가 자문조직 운영
- 대외협의체 참여

※ 참여 협의체 : 석탄발전 전환협의체(산업통상자원부), 고용안정 전문위원회(고용노동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협의회 등(충남도), 에너지전환 민관협의체(태안군)

- 협력사 노동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특별출연을 통한 태안군 경제 활성화 지원

4) 향후 계획

- 지자체 세수 확보를 위해 태안 9,10호기는 암모니아 혼소 방식으로 존속
- 부두 및 방파제를 태안권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조성

(3) 서부발전 노동조합

○ 면담

- 서부발전 노동조합 위원장 조인호
- 서부발전 노동조합 사무처장 이진석
- 동서발전노조 본사 지부장 이갑희

○ 저탄장 입향과 유연탄 약적장까지 운탄을 담당하는 항운노조 문제는 고용 관련 문제가 아님. 일량 축소에 따른 물량 계약관계의 문제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

○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은 법적 근거 없이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는 상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는 현재 형해화된 상태.

○ 한국노총 산하 ‘한전산업개발 비정규직노조’도 만나볼 것 권유

○ 한전산업개발 김용균씨 관련 수습 과정에서 태안화력발전 임직원들의 심적 부담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태안화력 발전소 정문 입구에 김용균씨의 동상이 서 있음)

(4)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모임(정태모)

○ 면담

- 이용도 위원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태안지회)
- 김용훈 지부장(한전KPS 협력업 체인 삼산 소속 비정규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현황 및 문제들

- 협력업체 비정규직들은 대부분 태안 분들임. 멀리 떠날 처지가 아님.

- 태안화력은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민자 유치 턴키 방식(turn-key base)으로 건설해 현지 주민들의 고용 흡수 효과는 크지 않음.
- '에너지전환지원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름.
- 충남노사민정협의회 불참은 회의가 실질적이지 않기 때문. 제대로 가동되면 참여 의사는 있다.
- 발전산업노조와는 처음 출발 시 좋은 관계로 출발했으나, 현장에서 갑을 관계로 변질되면서 현재는 함께하지 못하고 있음.
- 석탄재 활용 아이스패드 원천기술은 태안화력이 가지고 있으며, 이 기술을 이전해 주면 발전교육원 부지에다 공장을 지어 운영할 것. 고용 흡수가 클 것.
- 한전KPS 협력업체인 삼산은 3개월 사용고용이 관행화되어 있어 노동자들 모두 늘 고용 불안정에 놓여 있는 상황.
- 태안군민의 다수는 발전소 폐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노조의 소규모 집회를 통해 알려짐.
- 한전산업개발'노조의 자구 노력으로는 4조2교대를 5조3교대로 늘리는 방식과 under TO로 인력을 운영하여 폐지 호기의 인력을 흡수하고, 그전까지는 대근 수당을 통해 임금보전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함.
- 다만, 5조3교대 방식은 임금 저하효과를 가져와 퇴직을 앞둔 고참 직원들의 반대가 심함.

3. 시사점 및 현안 문제

- 태안화력 1~2호기를 폐쇄한다고는 하나 완전 철거 계획은 없다. 즉, 장기 운전정지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이며, 발전소는 언제라도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상유지가 필요. 윤활계통 보전, 각종 관(tube)과 밸브, 펌프 등 활동부문의 부식방지 조치(관에 질소 충진, 터빈 등 활동부문의 아이들링(idling)) 등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폐지 후에도 적지 않은 유지보수 인력이 필요.
 - 태안화력 협력업체들, 즉 한전산업개발이나 한전KPS, 금화PSC 등의 하청업체들의 시용(試用) 고용 관행이 심각. 근로기준법에 근거조항은 없으나 대법 판결(대법원2006, 6,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은 노동자를 채용했다가 3개월 만에 해고해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근거로, 대부분의 하청업체에서는 3개월 사용 고용을 관행화하고 있음.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안이라기보다는 비정규 고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직무역량강화 교육이 현실성이 없고, 희망직무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은 문제. 정규직 중심이며 발등에 불 떨어진 비정규직들은 무관심할 수밖에 없음.
- 〈既개설 직무교육 과정〉
- 「신재생에너지 기술반 등 93개 과정」, 한전산업개발 정규직 중심.
 - 「복합화력기술반 등 8개 과정」 협력업체 정규직 중심
- 〈신규 교육 과정〉
- 발전5사 협업, 석탄화력 협력사 노동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서부발전 – 한전KPS 협업, 정비 분야 상생 멘토링 사업 등
- 정태모의 주장은 처지는 이해하나 요구사항들이 대화의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여짐.
 - 한국전력이 한전산업개발에 지분을 갖고 있지만 지분률이 적어 한전산업개발은 공공부문으로 분류되지 않음.
 - 하지만 지원자들은 한전산업개발을 한국전력과 유사한 공기업인 줄 알고(한산에서 홍보도 그렇게 함) 취업했다가 현실을 보고는 이내 퇴사하는 경우가 많음. 회사 명칭을 맞게 바꾸던, 아니면 한전에서 지분을 더 사들여 실질적인 공공부문으로 운영케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Ⅲ부 노동·시민교육 프로젝트 작성을 위한 워크숍

1. 워크숍 개요

1. 시행배경

- 가.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실현의 교육 필요성)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 변화와 일자리 재편이 현실화되면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대응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음.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해 노동과 시민사회와의 공동 대응이 요구됨
- 나. (노동조합과 기후시민단체 간 상호이해와 공감대 조성) 노동조합과 기후운동은 서로 다른 문제의식과 관점을 지녀왔지만, 전환의 시기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대화가 선행되어야 함
- 다. (참여형 학습을 통한 연대 역량 강화와 공동체 구성) 강의 중심이 아닌 참여와 토론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양측이 교차하는 지점을 발견하고 연대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 목표임

2. 교육개요

- 가. 교육명 : 공공 재생에너지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 합동교육 (*공공상생연대기금 교육 공모 사업)
- 나. 일시 : 2025년 6월 12일(목) ~ 13일(금), 1박 2일
- 다. 장소 :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수원
- 라. 주최 :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 60+기후행동
- 마. 교육대상 : 노동조합 및 기후·시민 활동가 약 20명
 - 1) 기후·시민 활동가 : 단체별 1~2명 총 10명
 - 2) 노동조합 : 전력연맹 회원조합 사무처장 이상 10명

3. 주요 프로그램 일정

일자	시간	주요 활동
12일 (목)	12:00	연수원 도착, 방배정
	13:00	▷ 제 1모듈 (자신을 드러내기, 상대 이해하기) “나는 누구인가, 어떤 활동가인가?”, “우리 현장 보여주기, 공유하기”
	16:00	▷ 제 2모듈 (노동조합이 바라보는 기후운동, 기후단체가 바라보는 노동운동) - 1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 운동은?”
	18:00	저녁식사
	19:00	▷ 제 2모듈 (노동조합이 바라보는 기후운동, 기후단체가 바라보는 노동운동) - 2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20:30	마무리, 취침
13일 (금)	08:00	아침식사
	09:00	▷ 제 3모듈 (노동과 기후는 왜 만나야 하는가, 만날 수 있는가) “노동조합과 기후시민단체가 만날 필요성 확인 및 주제 나눔”
	12:00	점심식사
	13:00	▷ 제 4모듈 (노동과 기후는 어떻게 만나는가) “정의로운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향한 공동실천 모색과 연대”
	16:00	마무리, 귀가

4. 기대효과

- 가. 정의로운 전환 관련 노동과 시민사회 간 상호 이해 및 신뢰 기반 형성
- 나. 노동조합과 기후운동의 협력 가능성 확인 및 공통 의제 도출
- 다. 중장기적 연대 활동을 위한 교육 모델 및 실행 체계 마련
- 라.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접근 강화

5. 기타사항

- 가. 집결시간/장소 : 6.12(목) 12시 / 본관 3층 5강의실
- 나. 숙소배정은 강의실 입실이후 진행
- 다. 위치 및 오시는 방법
 - 1)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43-33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 2) 오시는 방법



2. 교육 방식

□ 목표 및 설계 방향

○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보다, 서로를 마주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공감대를 형성, 마음의 일치를 이끄는 배움의 자리로 설계하기.

–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서로 간의 공감과 연결, 연대의 질적 및 양적 가능성 높이는 토대 형성

○ 사회화 기능으로서의 교육

– 사회화 기능으로서의 교육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키우도록 해야 하는 점에 착안, 자신을 표현하고 많이 듣기, 숙고하기, 전체를 볼 수 있기를 포함
 –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지닌 사람들의 ‘벽을 뚫는 소통’ 공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음
 “진정한 한계는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 가정 안에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1박2일 숙박 워크숍 형태를 가짐.

○ 진행자의 역할

–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미래 공동창조를 위해 진행자는,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목표에 따른 긍정적 가능성과 잠재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질문을 던지는 역할.
 – 사람들은 공동의 미래를 위한 온전한 공동 창조자가 될 때 최고의 노력과 에너지를 발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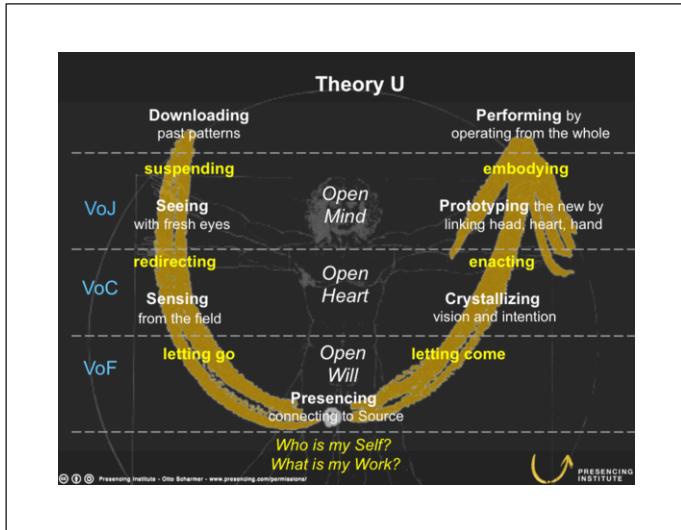
- '진지한 관심'을 지닌, 과거와 다른 미래를 만들어내겠다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공유한 이들의 조직화. 향후 행동 및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씨앗을 뿌림.
 - '무엇을 하는가'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집중하여, 기대하는 미래를 향한 창조자가 스스로 되도록 유도
 - 전체의 이익과 행복에 가장 부합할 만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함.

- 비가시성이 강한 가치들의 실재감 확인 (연결성, 상호작용, 마음공간 등)

□ 활용 모델

- U 프로세스

- 행동의 변화는 내면 공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존의 '얕은 듣기'에서 '깊은 듣기'로의 이행을 가지며, 이해와 공감,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프로세스.



- U 프로세스의 4단계 '기존 자기판단 확인 → 다른 시각 접촉 → 모두가 진실임을 이해 → 창의력과 자기원천으로부터 새 원형으로의 몰입'
- 이를 기본과정 모듈의 큰 방향으로 구성하되, 단계의 시작이 되는 '모듈1'은 '홀로그램적 시작'이 되어준다. 문제제기가 아닌 '핵심적 긍정요소'의 발굴 단계. 이때 사용하는 질문은 자신과 조직, 그리고 다루는 주제와 함께하는 배움의 동료들(참가자)이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지원함.
- 전체에 속한 '나'를 향해 더욱 집중하고 탐구할수록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 '인류'를 고려하는 확산적 사고가 힘양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공간 안에서 점진적인 탐구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성찰적 질문과 깊은 경청이 요구된다.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자기 언어화하고 경청자 앞에서 이를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생각을 좀 더 명료화하고 진실을 분별해 내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결국, 개인의 능력이 조직의 힘에 반영되는 경험이 진행된다. U 프로세스에 담긴 핵심 키워드는 자기 성찰과 그로부터의 발견 및 전환, 미래를 향한 실천이다.

- 서클 프로세스 (체크인, 체크아웃, 소그룹 라운드대화, 어항서클 등)

- 인류는 부족사회 때부터 불을 가운데 두고 둉그렇게 둘러앉아 각자의 경험과 지혜들을 나누며 사회를 존속시켜 왔다. 이를 현대화하여 주제가 있는 대화와 특히 어려운 대화를 나누어야 할 때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 특정 누군가가 더 큰 힘을 갖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한 힘과 권한을 지닌 채 서로의 이야기를 들

으며 스토리텔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배우고 깨달으며 전체가 동반 성장해 나아가는 프로세스이다. 스토리는 서로를 알 수 있도록 돋는 의도적 방법. 많은 정보가 들어 있으며, 논쟁을 불러오지 않는다. 안전하고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해준다.

- 동등한 발언권으로 전체의 자기 이야기를 들으며, 타인들의 행복이나 불행이 나 자신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관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서로에게 감사를 느끼고 영감을 얻으며 배움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모임 공간을 형성해준다. 이야기의 맥락과 성찰의 지속성이 중요한 이유로,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참여자 전체가 같이 시작하여 같이 마치는 원칙을 지킨다.
-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유대감을 나누며, 더 높은 토대를 향해 함께 움직이도록, 돌아가며 모두가 이야기하는 라운드의 대화 형태가 이를 지원해준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훈련되는 자발성의 원리가 배움의 공간 안에 활기와 소속감, 유대감 및 일체감을 만들어준다. 다회차의 라운드를 통해 이슈/정보/상황/텍스트와 자신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된다. 서클이 진행될수록 집단은 ‘모든 아이디어는 타당하다’는 점을 배워 나가게 된다. 원할 때만 발언하도록 ‘패스’가 허용되며, ‘팝콘’형식의 발언 형식도 서클 프로세스 안에 담겨 있다.
- 모임과 대화 형태의 기본을 서클 프로세스로 가져가면서, 여기에 학습조직론 방식이나 다양한 논의 및 의사결정 툴들을 얹어 서로 간의 관계형성이나 민주적 소통, 원원의 문제해결 및 주제토론, 팀워크 향상 등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
- ‘펑퐁’식의 대화 및 꼬리물기의 토론 등의 직선적인 모양새가 아닌, 곡선이며 에둘러 가는 형태의 만남과 대화가 이어지는 프로세스이므로, 내재된 불확실성은 오히려 진지함과 재미, 이완과 긴장 및 다양성의 즐거움을 선사해준다. 기존에 설계되는 배움의 주제 및 내용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기대하지 않던 영역까지로 배움이 확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 AI(Appreciative Inquiry) 강점 탐구 인터뷰 기법/접근

- 조직변화를 위한 하나의 접근법으로서, 모든 생명 조직에는 아직 발현되지 못하고 잠재되어있는 핵심 강점이 있으며, 그것이 드러나고 발현되면 개인과 조직의 변혁을 불러오는 긍정적 에너지의 지속적인 원천이 된다고 가정한다.
- ‘발굴하기 → 꿈꾸기 → 디자인하기 → 실현하기’ 크게 4 단계로 형성되며, 이를 위해 2~4명 소규모 대화와 대화를 여는 질문들이 기반이 되고, 여기서 발견된 지혜들로 소그룹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과 의견수렴이 가능하게 된다.
- 대부분, 각자들의 긍정 경험을 떠올리는 것으로 출발하여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은 지원이나 기여 등의 자원들을 풍부하게 기억해 내도록 유도하고,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을 다시금 정리하고 발견하여 앞으로를 위한 디자인을 시작하도록 하는 흐름이다.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인 요소들로 디자인하도록 앞서 충분히 다양한 직간접적 경험들, 실제 사례들을 나누며 탐구하도록 지원한다.
- 보완해야 하는 단점들, 고쳐야 하는 문제들에 집중하기보다, 지금까지 성공 및 유지에 자원이 되어 온 장점 및 강점들, 더욱 성장시켜야 하는 요소들에 포커싱되도록 지원하는 모델로, 미래 창조를 향해 구성원들이 스스로 방향성과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구체적이며 성찰적인 질문 설계가 중요하다. 공동 목표를 향해 구성원들이 함께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있는 그대로의 긍정과 수용, 존중과 신뢰, 비가시적이나 동력이 되어주는 가치 및 에너지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보편성 및 본성 등에 주목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강하고 기여하고 도와주려 한다, 즐겁고 유쾌한 에너지에 끌린다, 자기편이 누구인지 존중받고 있는지 소외되고 있진 않은지 등의 감각을 재빨리 안다 등)

□ 도구 및 장치

○ 책상 없이 의자만

- 둉그렇게 원형으로 앉아 자기 시야 안에 모든 참여자들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서로를 향한 관심과 집중, 연대감과 배려심 향상을 유도한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책상은 자칫 기존 익숙한 회의모드로 자신을 세팅하기 쉬운 까닭에, 서로의 존재가 드러내고 있는 언어/비언어적 신호들이 배움의 재료가 되도록 한다. 이러한 세팅은 서로배움에 필수 요소가 된다.

○ 그라운드 룰

-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나누는 데 안전하도록 룰을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 과정을 시작한다. 두려움이나 위협감, 소외감이나 조바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룰을 통해, 배움의 공간이 관대하고 편안하도록 세팅한다.
- ‘사람은 관대한 공간에서 가장 잘 배운다’는 원칙을 신뢰한다. 자기발견 및 자기반성적 배움을 위해 서로를 향한 빠른 판단이나 평가적 피드백을 보류하는 규칙도 포함되어 있다.
-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혼자서 배움 공간의 산소를 전부 마셔버리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감각, 그럼으로써 집단 지성이 최대화되도록 다양한 존재들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구하고 시작한다.

○ 열린 질문

- ‘네’ ‘아니오’ 등의 객관식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 형태보다, 어떤 방식이나 내용으로도 자신을 표현하고 답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활용한다.
- “이번 시간이 기대되시나요?”라는 닫힌 질문을 지양하고 “이번 시간은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등의 열린 질문을 통해 더 많은 주제와 이야기들을 수면에 끌어올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우리 안의 전체성을 열어 집단 지성을 최대한 형성하도록 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 성찰 질문

- 프로그램 내에서 사고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자신을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가치의 체화 과정을 참여자 서로가 독려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을 세팅한다. 이때, 세심하면서도 과감한 질문 설계가 필요하다.
- 참여형 교육에서 ‘질문’이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며 그 힘을, 동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참여형 교육에서 질문은 존중받고, 발견과 학습의 기회로 간주되는 중요한 도구이다.

○ 토킹 스틱(talking stick)

- ‘말하기 도구’를 사용하여, 동등한 발언권을 갖도록 시스템을 형성한다. 이를 가진 사람만 말할 수 있고 가지지 않은 사람은 듣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안내한다. 토킹 스틱이 손에 쥐어지는 순간, 스스로에게도 발언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형성되며, 내용적으로도 누군가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존중과 경청을 받는다는 안전함이 주어지므로 진실로 표현하고픈 발언 위주로 자신을 기꺼이 드러내게 된다.
- 이 시스템으로 하여금 이후에는 토킹 스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토킹 스틱을 사용할 때와 같은 소통 질서가 문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정해진 발언시간

- 모두가 돌아가며 같은 주제에 관해 자신을 표현하며 해당 시간을 여는 ‘체크인’은 각자 약 1분씩 발언해 달라는 부탁의 표현을 통해, 또는 전체에게 20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사전 안내를 통해 각자 자신의 발언 시간을 조절하도록 책임감 및 컨트롤 권한을 부여해준다.
- 첫날 첫시간에 해당되는 제1모듈 첫 활동때에는 각자 한 주제에 2분간 이야기하도록 시간을 세팅하여, 진행자가 매번 20초 남았음을 알리며 2분이 되면 ‘종’을 울리며 다음 사람에게 순서를 넘기는 식으로 진행한다. 이때 2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경험하며 발언 시간에 대한 감각을 익혀, 그다음 소그룹 나눔 시 종이 울리지 않더라도 앞서 훈련된 2분이란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주제의식이 담긴 영상물 시청으로 시작하기

- 다루려는 ‘주제’와 배움의 주체인 ‘나’ 사이에 어떤 방해물, 특히 다른 존재를 배치하지 않도록 세팅한다.
- 이를 위해 전체 프로그램의 오프닝 때, 권위 있는 누군가의 의도된 발언 대신 영상 시청으로 이번 워크숍의 취지 설명 및 주의집중 과정을 대체한다.

○ 벽에 교육용 자료 출력물 부착

- 기존의 ‘강의식’ ‘발제–토론’으로 구성된 배움의 방식에서, 교육의 제공자와 수요자의 역할과 행위 양식, 권한의 범위

등이 전부다 전복되는 '참여형 교육 방식'을 구성하기 위해, 교육 참여 전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은 사전 배포되는 자료집과, 교육 공간 벽에 부착한 자료들로 제공하도록 한다.

- 미리 지식을 머릿속에 넣은 채로 테스트 받는 식의 발언들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참여형 워크숍은 현재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것, 이를 가능케 했던 그간의 자신의 직·간접적 경험들이 배움의 재료로 쓰인다. (그리고 참여형 교육은 이러한 재료로도 배움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전체를 세팅한다.) 이 둘 간의 틈을 메우고 간격을 최소화하고자, 배움이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참조와 힌트가 되도록 잘 보이는 형태로 잘 보이는 곳에 관련 자료 및 정보들을 크게 출력하여 부착해놓도록 한다.

<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단위: TWh, %) >

연도	구분	원전	석탄	LNG	재생e	신e	청정수소·암모니아	기타	합계	탄소	무탄소*
'23년 (실적)	발전량	180.5	184.9	157.7	49.4	7.2	-	8.3	588.0	358.2	229.9
	비중	30.7	31.4	26.8	8.4	1.2	-	1.4	100.0	60.9	39.1
'30년	발전량	204.2	110.5	161.0	120.9	18.7	15.5	11.8	642.6	302.0	340.6
	비중	31.8	17.2	25.1	18.8	2.9	2.4	1.8	100.0	47.0	53.0
'35년	발전량	236.0	88.9	101.1	179.9	24.3	32.8	28.5	691.5	242.8	448.7
	비중	34.1	12.9	14.6	26.0	3.5	4.7	4.1	100.0	35.1	64.9
'38년	발전량	248.3	70.9	74.3	205.7	26.4	43.9	34.9	704.5	206.7	497.8
	비중	35.2	10.1	10.6	29.2	3.8	6.2	5.0	100.0	29.3	70.7

* 무탄소발전 : 원전 + 재생 + 청정수소·암모니아

** 신규설비 중 '무탄소경쟁' 물량은 수소전소(0.7GW) 및 ESS연계형 태양광(0.8GW)으로 반영

*** 무탄소경쟁 시장 여건, 유보 물량 처리 등에 따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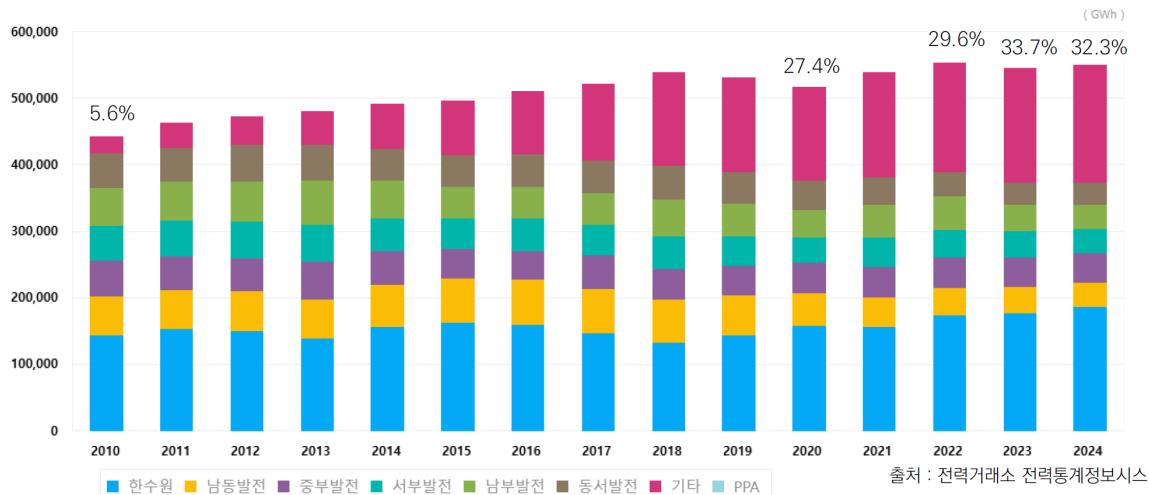
<표> 화석연료와 비교한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단가 비교(2010~2023)

	Total installed costs			Capacity factor			Levelised cost of electricity		
	(2023 USD/kW)			(%)			(2023 USD/kWh)		
	2010	2023	Percent change	2010	2023	Percent change	2010	2023	Percent change
Bioenergy	3 010	2 730	-9%	72	72	0%	0.084	0.072	-14%
Geothermal	3 011	4 589	52%	87	82	-6%	0.054	0.071	31%
Hydropower	1 459	2 806	92%	44	53	20%	0.043	0.057	33%
Solar PV	5 310	758	-86%	14	16	14%	0.460	0.044	-90%
CSP	10 453	6 589	-37%	30	55	83%	0.393	0.117	-70%
Onshore wind	2 272	1 160	-49%	27	36	33%	0.111	0.033	-70%
Offshore wind	5 409	2 800	-48%	38	41	8%	0.203	0.075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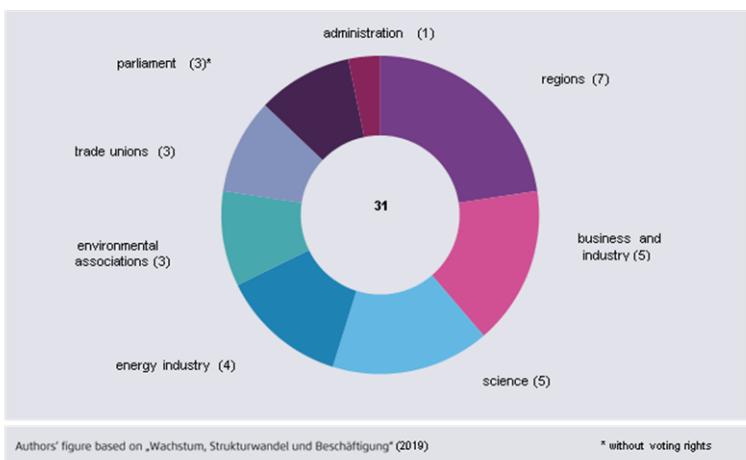
Notes: CSP = concentrated solar power; kW = kilowatt.

자료: ierina, 2024.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23.

□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발전공기업 비중



<참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축 (독일의 탈석탄위원회 사례)



자료: Agora Energiewende, 2019, The German Coal Commission

3. 제1일차 프로그램 진행

□ 사전 활동

○ 환영의 인사, 워크숍 취지 안내

바쁜 일정 가운데 이곳에 참여하기로 기꺼이 선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자리에는 한전 노동조합 10명, 기후환경단체 10명, 전문가 20명을 모셨습니다.

- ① 서로 간의 대화, 연결, 만남이 이뤄지기에 매력적인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 ② 옳고그름 혹은 당위성을 주입하는 시간이 아닌, 활동에 있어 혁신 및 실천을 각자가 환기하시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 ③ ‘공공재생에너지 확보와 정의로운전환 실현’이라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 공간을 창조하는 데 향후 필요 한 파트너십을 확인하며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둔 워크숍입니다.

○ 브레인스토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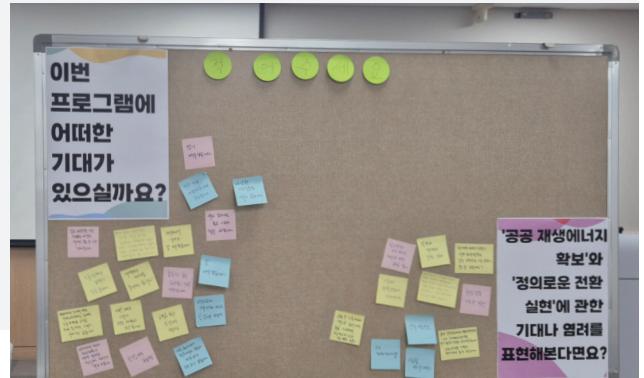
질문① 이번 프로그램에 어떠한 기대가 있으실까요?

- 기후단체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 현장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 노동조합과 기후단체의 상호 이해와 연대의 필요성
- 기대가 큽니다
-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 잘 배우겠습니다.
- 노동조합과 기후단체 사이의 공감대 형성
-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 서로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많이 배우겠습니다
-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
- 발전소 노동자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숍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정리되어 피드백 되었으면 좋겠고 일회성이 아닌 다음 단계 논의가 있었으면 좋을 듯합니다.
- 노동계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의 새로운 활력을 환기하는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 효용성있는 워크숍이 되길 기원합니다
- 귀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과정 이후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노조연맹의 우려와 기후단체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는 자리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 활동가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 에너지 분들과 자연보호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알고 싶습니다.
-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 길과 길은 만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질문② '공공 재생에너지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에 관한 기대나 염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중심으로 삼척에 거주하며 활동중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선 노동과 함께 가야하지만 소통할 기회가 그간 없어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 올해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2030 조기폐쇄 로드맵을 주민활동가 분들과 구상하려고 합니다. 삼척블루파워 노동자 분들께서도 참여하시고 함께 논의해나갔으면 좋겠는데,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조기 폐쇄라는 구호를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신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기후와 전력산업의 이해관계
- 발전과 환경의 상호 이해
-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정의로운 전환 방법 찾기
- 산불 등 기후재난에 대응한 취약계층 돌봄, 자연기반 기후적응에 관한 공동 혹은 협동 활동

- 공공재생에너지사업이 석탄화력발전소 실직 노동자의 고용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 공공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석탄화력발전소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광점위하게 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 양수발전소
- 삼림바이오매스
- 현실 적용 가능한 방안



○ 체크인 (돌아가며 1분씩/ 이름과 소속 소개, 이번 워크숍에 기대하는 점 1가지)



○ 그라운드 룰 안내

12일 (목)	
11:30	연수원 도착, 방배정, 점심식사
13:00	제 1모듈 (자신을 드러내기, 상대 이해하기)
16:00	제 2모듈 (노동조합이 바라보는 기후운동, 기후 단체가 바라보는 노동운동)-(1)
18:00	저녁식사
19:00	제 2모듈 (노동조합이 바라보는 기후운동, 기후 단체가 바라보는 노동운동)-(2)
20:30	마무리, 취침

13일 (금)	
7:30	아침식사 (8:00까지 식당 입실)
9:00	제 3모듈 (노동과 기후는 왜 만나야 하는가, 만날 수 있는가)
12:00	점심식사
13:00	제 4모듈 (노동과 기후는 어떻게 만나는가)
16:00	마무리, 귀가

함께 소통하여 지혜를 모으기 위한 '그라운드 룰'

- 상대의 말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 자기 경험이나 생각, 느낀 것을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 사적인 이야기는 비밀로 보호해줍니다.
- 동등한 발언권을 통해 모두의 이야기가 들리도록 노력합니다.
- 빠른 판단을 유보하고, 따사로운 주의집중과 호기심으로 서로를 듣습니다.
- "실수"나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환대하며 함께 듣습니다.
- 때론 침묵을 신뢰해봅니다.

함께 소통하여 지혜를 모으기 위한

'그라운드 룰' (Ground Rules)

- 상대의 말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 자기 경험이나 생각, 느낀 것을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 사적인 이야기는 비밀로 보호해줍니다.
- 동등한 발언권을 통해 모두의 이야기가 들리도록 노력합니다.
- 빠른 판단을 유보하고, 따사로운 주의집중과 호기심으로 서로를 듣습니다.
- "실수"나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환대하며 함께 듣습니다.
- 때론 침묵을 신뢰해봅니다.

□ 제1모듈 : 자신을 드러내기, 상대방을 이해하기

- 15분 영상 시청 (“노동자, 전환의 주체가 되다!”(2023, 새알미디어))



- 동심원 대화 (2명씩/ 파트너를 바꾸어 4 가지 질문에 답하기)

질문 1. 지금 속해 있는 조직에 진입한 초기를 떠올리면, 어떠한 기대나 흥미가 있었는지?

질문 2. 지금껏 조합원/활동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던 동력은?

질문 3. 기후위기가 자신 또는 우리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지?

질문 4. 자신이 생각하는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고, 이를 위해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동심원 대화 후 전체 나눔

- 질문 4가지에 관해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점 나눔
- 서로에게서 발견된 공통점들, 공감되는 부분들을 언급함
- 자기 안에 떠오르는 물음들과 호기심들, 다가가고 싶은 마음 등을 확인함
-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 갈 것이 기대됨을 표현

- 믹싱 대화 (노동2+기후2=4명씩/ 돌아가며 2분씩, 3가지 질문에 답하기)

(명찰 하단에 미리 적힌 ‘빨강/주황/노랑/파랑/초록’ 글자가 같은 분들과 만나 그룹 형성)

(‘말하기 도구’와 ‘대화 진행지’를 나눠주고, 발언 2분마다 종을 울려 확인시켜준다.)

→ ‘말하기 도구’를 사용해 총 3바퀴를 돋니다.

첫 번째 분이 ‘질문 1’번에 관해 약 2분간 말씀하시고, ‘말하기 도구’를 오른쪽으로 전달하여 네 분이 전부 ‘질문 1’에 관해 2분씩 이야기합니다.

질문 1. 자신이 닮고 싶은 (혹은 자랑스러운) 조합원 또는 활동가 1인을 꼽는다면 누구이고, 왜 그런가요?

→ 첫 번째 분이 ‘질문 2’번에 관해 약 2분간 말씀하시고, ‘말하기 도구’를 오른쪽으로 전달하여 네 분이 전부 ‘질문 2’에 관해 2분씩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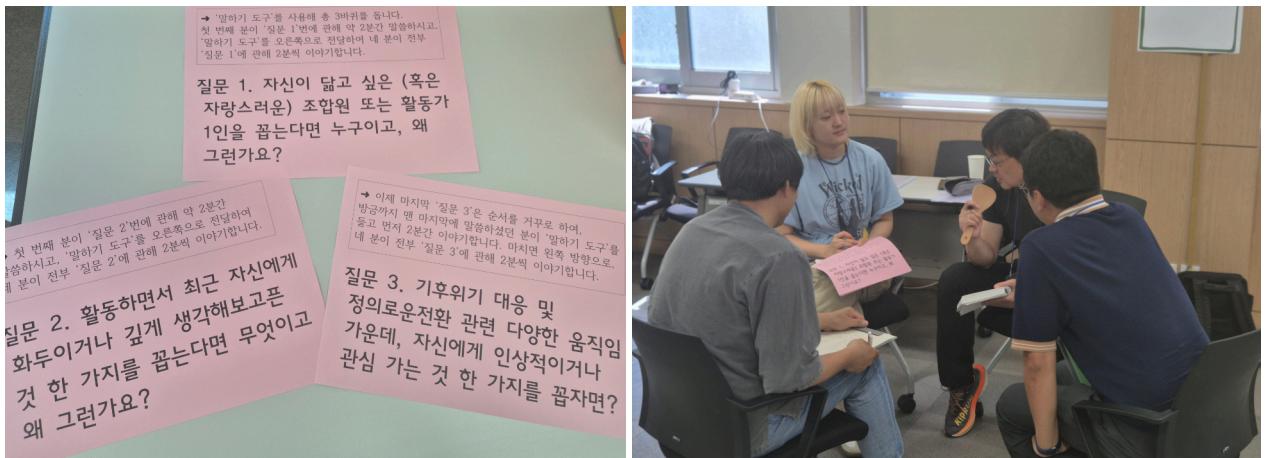
질문 2. 활동하면서 최근 자신에게 화두이거나 깊게 생각해보고픈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고 왜 그런가요?

→ 이제 마지막 '질문 3'은 순서를 거꾸로 하여, 방금까지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분이 '말하기 도구'를 들고 먼저 2분간 이야기합니다. 마치면 왼쪽 방향으로, 네 분이 전부 '질문 3'에 관해 2분씩 이야기합니다.

질문 3.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전환 관련 다양한 움직임 가운데, 자신에게 인상적이거나 관심 가는 것 한 가지를 꼽자면?

→ 모든 질문이 끝났습니다.

기꺼이 말씀해주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그룹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향해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다른 그룹은 아직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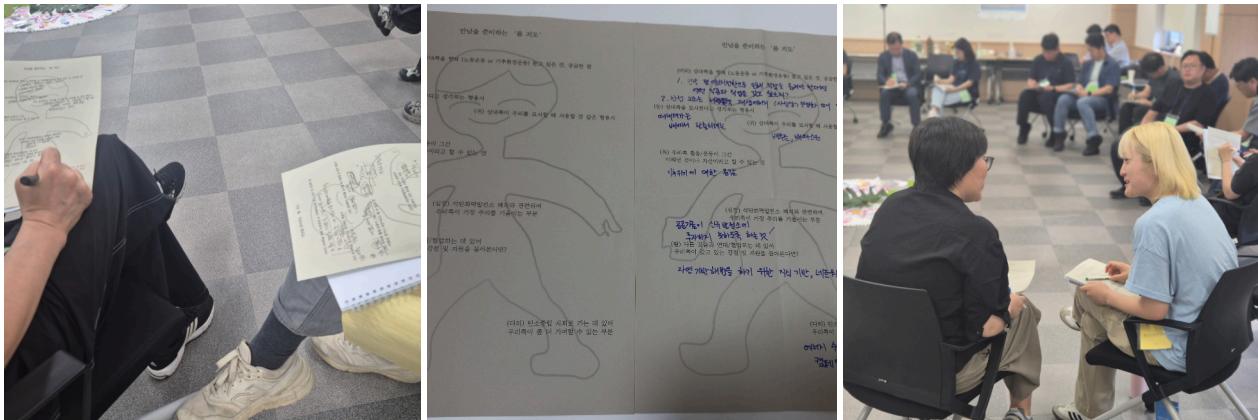
○ 체크아웃 (돌아가며 30초씩/ 이번 모듈을 마치며 자신에게 남아 있는 한 단어)

□ 제2모듈 : 노동조합이 바라보는 기후운동, 기후단체가 바라보는 노동운동

○ 내집단 대화 (2명씩 / '만남을 준비하는 몸지도' 채운 뒤, 타 그룹 활동지 검토)

(노동조합/기후환경단체 각각 2명씩 활동지 1장 채우기, 25분)

- “만남을 준비하는 몸 지도 채우기”
- (머리) 노동운동/기후환경운동을 향해 갖는 질문(에 대해 궁금한 점)
- (눈) 상대쪽을 묘사한다고 생각하는 형용사
- (귀) 상대쪽이 우리를 묘사할 때 사용할 것 같은 형용사
- (목) 우리쪽 활동/운동이 그간 이뤄낸 것이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 (심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관련하여 우리쪽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
- (팔) 다른 조직과 연대/협업하는 데 있어 우리쪽이 갖고 있는 강점 및 자원을 꼽아본다면?



○ 활동지를 가지고 타그룹과 만나 서로 돌려보기 (노동 2그룹, 기후 2그룹)



○ 어항 대화 (10명씩 2그룹/ 돌아가며 1분씩, 2질문에 답하기)

(큰 원을 둘로 나눠 안의 원과 바깥 원으로 형성
해, 바깥 원이 안의 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노동과 기후 어떤 그룹이 먼저 In 할지, 각 그룹
에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나와 제비뽑기로 정
함)



(노동조합 먼저 In, 그다음 기후환경단체 In / 같은 2질문에 답하기)

질문 1.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활동 가운데, 우리가 지금껏 잘해왔거나 현재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 한 가지는?

질문 2. 향후 상대쪽과 우리가 더욱 연결되고 활발한 연대를 기대하며, 양쪽이 한마음이었으면 하는 의견이나 사안을 하나 꼽아본다면?



○ 개인 작업 (30분씩, 활동지 4 질문에 답하기)

('정의로운 전환' 관련한 각자의 성찰 시간을 30분간 가짐)

질문 1. 방금 '어항대화'를 통해 느낀 것은? 우리쪽 또는 상대쪽에 관해 새롭게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것은?

질문 2. 기후위기대응 및 정의로운전환 관련 활동/운동이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 자신 그리고 우리쪽에 필요해 보이는 것은?

질문 3. 스스로가 삶에서 '전환'(이전과 완전히 결별하고 돌아선)의 주체가 되었던 경험은 언제이고, 이때 어떻게 전환이 가능했는지?

질문 4.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노동+기후가 주체가 됨을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이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 보이는 것은?

○ 믹싱 대화 (노동2+기후2=4명씩/ 돌아가며 2분씩, 4질문에 답하기)

(활동지 하단에 미리 적힌 'ABCDE' 글자가 같은 분들과 만나 그룹 형성)

('말하기 도구'와 '대화 진행지'를 나눠주고, 발언 2분마다 종을 울려 확인시켜준다.)

→ '말하기 도구'를 사용해 총 3바퀴를 돋니다.

첫 번째 분이 '질문 1'번에 관해 약 2분간 말씀하시고, '말하기 도구'를 오른쪽으로 전달하여 네 분이 전부 '질문 1'에 관해 2분씩 이야기합니다.

질문 1. 방금 적으신 것중 '질문 1과 2'번에 쓰신 것을 나눠주세요.

→ 첫 번째 분이 '질문 2'번에 관해 약 2분간 말씀하시고, '말하기 도구'를 오른쪽으로 전달하여 네 분이 전부 '질문 2'에 관해 2분씩 이야기합니다.

질문 2. 방금 적으신 것중 '질문 3과 4'번에 쓰신 것을 나눠주세요.

→ 이제 마지막 '질문 3'은 순서를 거꾸로 하여, 방금까지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분이 '말하기 도구'를 들고 먼저 2분간 이야기합니다. 마치면 왼쪽 방향으로, 네 분이 전부 '질문 3'에 관해 2분씩 이야기합니다.

질문 3.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느낀 것이나 소감을 나눠주세요.

→ 모든 질문이 끝났습니다.

[문구 상자]에서 포스트잇과 펜을 꺼내어, 각자 자신이 ‘질문 4’에 적은 답변을 잘 보이도록 적어주세요. ♪♪
적은 포스트잇을 들고, 해당 질문이 적힌 모조지에 갖다 붙여주시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주세요.

기꺼이 말씀해주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그룹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향해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다른 그룹은 아직 진행중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체크아웃 (돌아가며 30초씩/ 이번 모듈을 마치며 자기 마음에 남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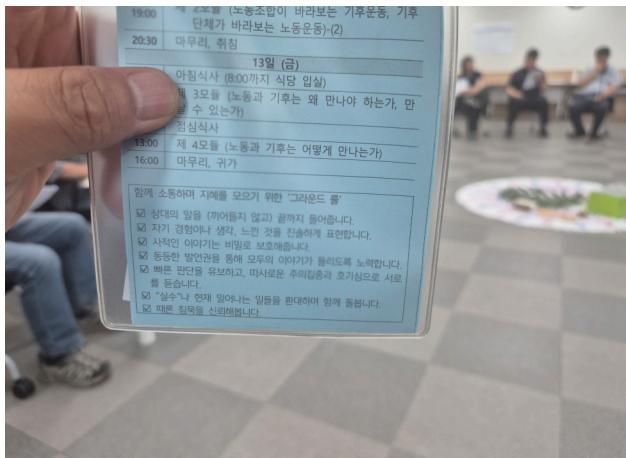
처음과 달라진 생각이나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을
담담히 나눔
앞으로 연대할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등을 확
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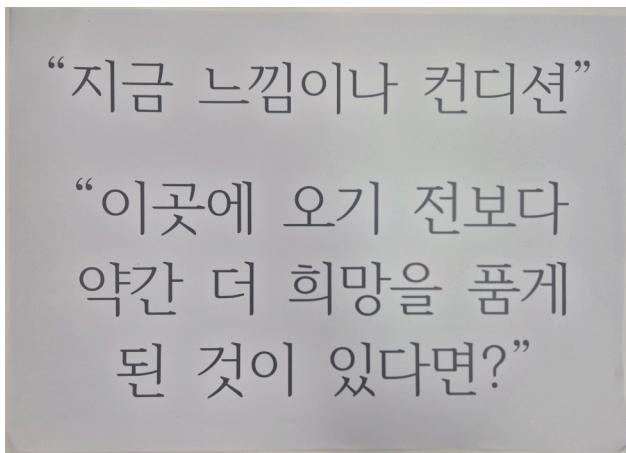
4. 제2일차 프로그램 진행

□ 제3모듈 : 노동과 기후는 왜 만나야 하는가, 만날 수 있는가

○ 환영의 인사, 그라운드 룰 확인



○ 체크인 (돌아가며 1분씩/ 지금의 컨디션, 여기 오기 전보다 약간 더 희망을 품게 된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



○ 스펙트럼 대화 (100분/ 2질문에 한 줄로 서서 자기 입장 밝히기)

(연습) 질문 0. 1년 365일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좋은날은 언제인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줄로 서보세요.

질문 1. 현재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23년 31.4% 비중이던 석탄에너지를 15년 뒤 2038년 10.1%로 감축 할 계획으로 정부는 24~36년 석탄화력발전소 노후 28기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현재 59기 중 47.5% 비중이다. 정부의 이 정책 속도가 느리다고 보는지 빠르다고 보는지?

(숫자 0~10까지 a4 매직펜으로 적은 뒤, 한 줄로 서보기)

(의견들을 확인한 뒤, 다시 A4를 나눠주고 자신의 최종 숫자를 적어 줄을 다시 서봅니다.)



□ 제4모듈 : 노동과 기후는 어떻게 만나는가

- 소그룹 작업 (60분/ ‘가상 도시 00에 정의로운전환이 일어난 모습 구상하기’)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앞두고 있는 지역 △△, 10년간 노동·시민의 연대와 노력, 지자체·정부의 지원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일으키다!”

- [1] 10년 뒤 이 지역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 [2] 그러하기까지, 어떠한 고려사항과 결정들, 이벤트가 있었을지 추측하여 나열해봅시다!

(명찰 하단에 적힌 ‘봄/여름/가을/겨울/산책’으로 4그룹으로 만납니다. 노동2+기후2)
(나눠드린 기초 자료를 참조하여 60분간 모조지에 적고 그려본 뒤, 화이트보드에 부착합니다).

[소그룹에 배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앞두고 있는 △△ 지역(군 단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초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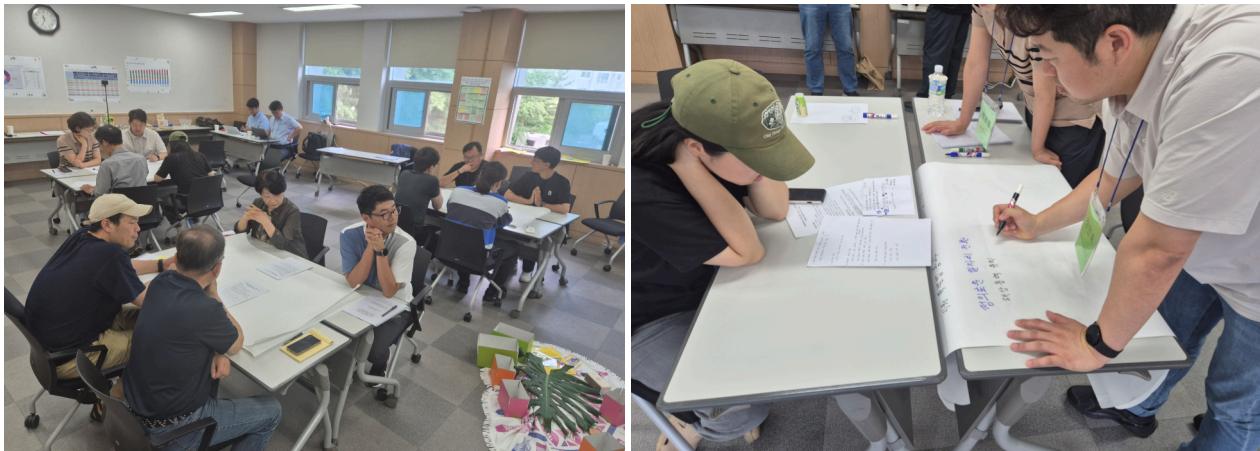
■ 일반 현황

- 인구 : 약 6만명
- 지자체 1년 예산 : 7,300억원

- 재정자립도 : 12% / 군단위 재정자립도 평균 17.2%(2023년)
- 발전소로 인한 세수 : · 지역자원시설세 : 120억원/연
- 석탄화력발전소 수 : 총 10기 (2036년까지 6기 폐쇄)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인력 감축 : 1기 당 약 500명 * 6기 = 3,000명
(가족을 고려했을 때, 인력 감축 인구 감소 추정 : 6천~1만명 정도)
- 대표적인 석탄화력발전소 직군 : △ 발전 설비 운영, △ 기계 장비 유지보수, △ 전력설비 유지보수, △ 환경설비 유지보수, △ 안전 관리, △ 석탄 수송 및 보관, △ 청소·경비 등 지원 업무, △ 일반 사무직 등

■ 지역경제 파급 효과

- 일자리 감소 :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직접 감소
-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타격 : 노동자와 가족 등의 인구 유출. 특히 젊은 층 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감소. 요식업, 숙박업, 병원 등 타격 예상
- 지자체 세수 확보 :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세수 감소 문제 추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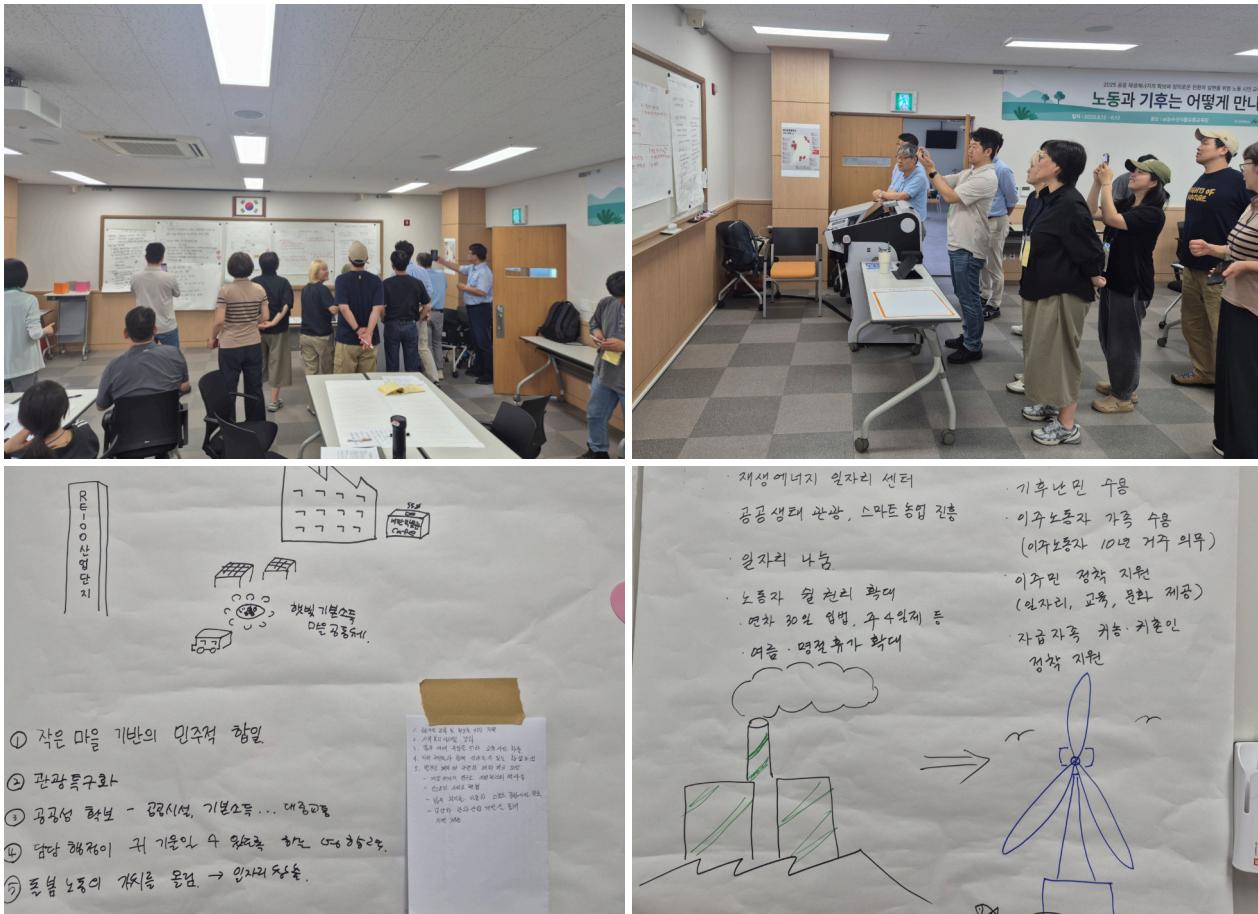


○ 갤러리 투어 (5그룹 작업물 돌아보며 피드백 및 질의응답)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궁금한 점, 반응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5그룹의 공통점이 있다면 발견해봅시다.

전체적으로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내지는 공동행동 특구 식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통인 것 같고요. 법을 만들고 지원 센터, 교육 센터를 만들자는 것도 지금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죠. 지역 경제 활성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 관광하고 재생 풍력 관련한 거점 정도가 좀 공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예 폴리텍 대학 연계 이런 것도 있고요, 아주 노동자 관련한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발전소는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바람과 바다의 축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관광 영역이라든가, 석탄발전소 폐지와 관련한 테마파크 조성,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해 상세한 제안을 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소그룹 이야기들)

전력 수요를 줄이는 사회적 노력과 함께,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확대가 필요하다, 개발 갈등 없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또한 일자리는 줄어들더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주4일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적은 인원으로도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쉬는 것도 권리다, 지역 경제 안에서 숨 쉴 틈이 필요하다, 그런 환경이 조성된 사회가 좋겠다.

소규모 마을 단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햇빛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운영, 공공시설과 기본소득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마을에 대한 상상. 공공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돌려주는 구조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기대 나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기후난민이나 이주노동자 가족을 함께 수용하는 도시 구상, 다양한 삶이 어울려 사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 법 안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즉 지자체·노조·시민단체·주민·전문가가 함께하는 위원회 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되어야 하고, 관광산업, 돌봄산업, 디지털 스타트업 등 대체 산업 육성과 고용 보장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의 인력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과 폴리텍 대학 연계, 에너지 산업 취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조기 은퇴에 대한 지원 제도도 중요하다. 발전소 부지나 사택 등은 데이터센터, 영화촬영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기후난민과 이주민 가족 수용 공간으로 전환한다.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해서는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사회복지 강화도 꼭 필요하다. 기술을 배우는 전환 노동자들에게는 국가기술자격 인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의로운전환군, 해상풍력시 같은 전환 중심의 새로운 지자체 모델도 가능. 분산에너지법 개정, 차등요금제 강화, 전력 소비자와 생산자의 일치를 위한 이전 기업 인센티브 제도 등도 필요하다. 이런 상상이 단지 그림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적 실천이 필요하다.

○ 전체 평가서 작성

- ① 이번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나요?
- ② 좋았던 것과 아쉬웠던 것
- ③ 워크숍 참여 이전과 달라진 생각? 새롭게 알게 된 것?
- ④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면 자신이 기꺼이 해볼 수 있거나 관심 갖고 싶은 것은?
- ⑤ 동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한다면 “이 워크숍은 000이다”라고 어떤 한 문장으로 설명할 것인지?
- ⑥ 이다음 심화과정이 있다면 기대되는 것은?
- ⑦ 그밖에 진행팀에게

○ 체크아웃 (돌아가며 1분씩 / 이번 워크숍을 마치며 남아 있는 것 혹은 일상에 가져가는 것)



5. 종합평가

□ 배움 및 전환이 일어났던 순간들

- 제1모듈 소감 나눔 : 서로가 다르지 않구나, 공통된 가치 확인, 역지사지의 경험, 상대를 더욱 듣고 싶다는 기대감 형성
- 제2모듈 어항 대화 : 우리가 상대에 관해 인식하는 점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에너지의 공공성에 관한 중요성, 서로 간의 연대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확신, 상대쪽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등을 인지하게 됨
- 제2모듈 외집단 대화 체크아웃 : 이전 아버지 세대인 연탄과 구공탄 사용 시절과 지금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시기를 견주어보며, 우리는 지난 30년간 무엇을 준비해 왔는가 하는 반성의 시간, 서로가 결코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확인
- 제3모듈 스펙트럼 대화 : 질문에 곧장 적은 숫자들은 0부터 2,3까지가 많고, 중간 4명, 9와 10까지가 많았다. 왜 그 숫자를 적었는지 자기 견해를 총 2라운드에 걸쳐 나눈 다음, 최종 숫자를 적을 때는 1과 2는 4로, 9와 10은 7과 9로 변화함. 양쪽 극으로 갔던 숫자가 점점 거리가 좁혀진 것을 통해, 고려사항에 관한 공감대를 더욱 형성할 수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제4모듈 소그룹 작업 : 10년 뒤 이상적인 모습 및 로드맵 확인 시, 구체적 행동 및 실천방향과 그에 필요한 역량을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

□ 참가자 최종평가서 모음

○ 개요

- 목적 : 공공재생에너지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 방향을 노동·시민 관점에서 공동 모색
- 방법 : 시민단체·시민사회·노동조합 설문지 작성 제출
- 정리 : 주제별 동일 문항을 둘어 공동 의견·차이점으로 분석

○ 주요 내용

- 공통 인식 : 정의로운 전환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 과제로 노동과 시민의 공동 실천이 필수
- 이번 과정에서 얻은 것
 - 1) 연대와 동료성 : 동료·노동의 동지, 서로의 경험과 시각을 경청
 - 2) 관점 확장 : 노동운동 ≠ 시민운동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라는 재인식
 - 3) 공공성 재확인 : 전환은 기술·가격 문제가 아니라 공공적 거버넌스 과제
- 좋았던 점/아쉬운 점
 - 1) 좋았던 점 : 현장과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토론한 시간 자체의 가치, 강의자의 전문성, 단체 간 사례 공유
 - 2) 아쉬운 점 : 토론 시간 부족 → 심화·세부 논의 미흡, 사례 중심 학습(노동 내부/현장 사례)과 도구화된 실천 방안 부족
- 주변인에게 한문장 소개 (이번 교육을 한문장으로 정리한다면)
 - 1) 노동과 시민이 함께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한 자리
 - 2)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확인한 시간
 - 3) 연대와 공공성을 다시 확인한 시간

○ 종합 결론

-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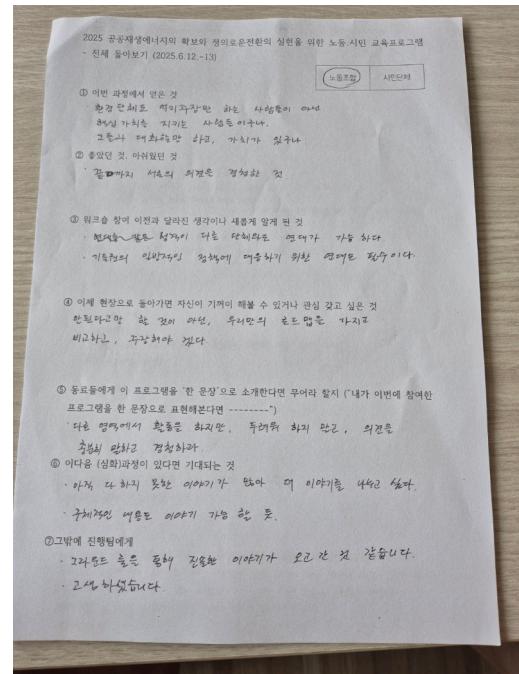
- 1) 노동과 시민이 함께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
- 2) 연대와 교류를 통해 공공성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한계와 과제

- 1) 심화된 토론의 부족, 현장과 연결된 구체적 사례 공유의 한계
- 2)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 도출 미흡

- 향후 제안

- 1) 사례·쟁점·전략을 잇는 심화 모듈형 교육과정 설계
- 2) 현장 중심 사례 수집·아카이브 구축
- 3) 노동·시민 공동 실천 계획 수립과 제도화 논의 병행
- 4) 결과물을 문서·자료집 형태로 정리·공유하여 실천 도구화



○ 참여 후기글

“제천의 고2, 청년 기후운동가 작은 거인, 그리고 어항 속에 빠진 나” (글 – 한전KDN노조, 안용순)

그날도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실장님, 6월 12일부터 회의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중요한 일정이 생겨서 대신 좀 다녀와 주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의겠거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료만 주시면 돼요~”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자료를 받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제목이 ‘노동과 기후는 어떻게 만나는가?’였습니다. 기후? 탄소 중립? 정의로운 전환? 이건 회의가 아니라… 뭔가 엄청 어려운 워크숍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른 말. “이건 그냥 가서 조용히 있어야겠다…”

그렇게 겁도 나고, 긴장도 된 상태로 워크숍 장소에 도착했는데… 첫 영상이 끝나고 자기소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은 친구가 말했죠. “저는 참관자로, 제천에서 온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앙? 고등학교 2학년???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준비한 자기소개 멘트도 다 날아갔습니다. 3주간 진행되는 학교의 체험(?) 학습을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자리에 와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산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작은거인’이라 불리던 청년 기후운동가가 있었어요. 키는 작았지만, 그녀의 말하는 내용은 정말 크고 강했습니다. 그녀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냥 탄소 줄이는 게 끝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도 같이 지켜야 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신기했던 건 ‘어항토크’라는 토론 방식이었는데요, 처음엔 “어? 내가 물고기도 아닌데 왜 어항에 들어가서 말을 하지?” 싶었어요. 말도 잘하지 못하고 자신도 없었는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 나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제 차례가 됐을 땐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다들 고개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그 모습에 정말 감동했고, 덕분에 제 마음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 공간은 진짜 어항 같았어요. 투명하고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사실 워크숍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문제나 노동자 고용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기후는 노동이고, 노동도 기후랑 연결돼 있다는 걸요.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복지, 지역, 그리고 우리 삶 전체의 문제라는 걸요.

이제는 노동조합도 기후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제 자리에서 뭘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짧았지만 진하고 따뜻했던 이틀. 어렵기만 할 줄 알았던 기후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살짝 들어온 ‘작은 변화’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IV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동·시민교육 프로그램

1.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프로그램 구성

○ 기본과정 (4모듈/ 총12시간)

12일 (목) 오후 1 ~ 4시		▷ 제1모듈 – 자신을 드러내기, 상대방을 이해하기 “나는 누구인가?” “우리 현장 보여주기”	
시간	소요	활동	내용
시작 전	60	보드판(포스트잇) 작성	1)프로그램에 기대하는 것 2)공공재생에너지 확보와 정의로운전환 실현에 대한 기대나 염려?
1:00~1:15	15	오프닝 영상 시청	“노동자, 전환의 주체가 되다!”
1:15~1:25	10	환영 인사, 취지 안내	환영과 감사의 인사, 진행팁 소개 공공재생에너지 확보와 정의로운전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되는 자리임을 소개
1:25~1:50	25	체크인	(25명*1분씩) “이름, 지금느낌, 이번 워크숍에서 기대하는 점 1가지?”
1:50~2:00	10	그라운드 룰 안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대의 말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기 경험이나 생각, 느낀 것을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적인 이야기는 비밀로 보호해줍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등한 발언권을 통해 모두의 이야기가 들리도록 노력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빠른 판단을 유보하고, 따사로운 주의집중과 호기심으로 서로를 듣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수”나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환대하며 함께 돌봅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때론 침묵을 신뢰해봅니다.
2:00~2:40	40	동심원 대화 ['나']	(2명*2분씩*5질문=25분) 질문 1. 지금 속해 있는 조직에 진입한 초기를 떠올리면, 어떠한 기대나 흥미가 있었는지? 질문 2. 지금껏 조합원/활동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던 동력은? 질문 3. 기후위기가 자신 또는 우리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지? 질문 4. 자신이 생각하는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고, 이를 위해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전체 나눔 (15분) – 자신의 마음에 와 닿은 것이 있다면?
2:40~2:50	10	휴식	
2:50~3:40	50	믹싱 대화 ['우리']	(4명(노동2+기후2)*2분씩*3질문=30분) 질문 1. 자신이 닮고 싶은 (혹은 자랑스러운) 노동조합원/활동가 1인을 꼽는다면 누구이고, 왜 그런지? 질문 2. 활동하면서 최근 자신에게 화두이거나 깊게 생각해보고픈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고 왜 그런지? 질문 3.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전환 관련 다양한 움직임 가운데, 자신에게 인상적이거나 관심이 가는 것 한 가지는? 전체 나눔 (20분) –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3:40~3:50		체크아웃	“이번 세션을 마치며, 자신에게 남아 있는 단어 하나는?”

12일 (목) 오후 4 ~ 8시반		▷ 제 2모듈 – 노동조합이 바라보는 기후운동, 기후단체가 바라보는 노동운동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 운동”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현 모습 마주하기	
시간	소요	활동	내용
4:00~4:05	5	환영, 소개	(전체 일정 및 이번 세션 안내)
4:05~4:15	10	체크인	“지금 속한 조직에 갖는 자긍심 1가지는?”
4:15~4:55	40	내집단 대화 [‘관심’]	<p>(조직 내 2명씩(25분), 노동은 노동끼리, 기후는 기후끼리)</p> <p>“만남을 준비하는 몸 지도 채우기”(25분)</p> <p>(머리) 노동운동/기후환경운동을 향해 갖는 질문(에 대해 궁금한점)</p> <p>(눈) 상대쪽을 묘사한다고 생각하는 형용사</p> <p>(귀) 상대쪽이 우리를 묘사할 때 사용할 것 같은 형용사</p> <p>(목) 우리쪽 활동/운동이 그간 이뤄낸 것이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p> <p>(심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관련하여 우리쪽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p> <p>(팔) 다른 조직과 연대/협업하는데 있어 우리쪽이 갖고 있는 강점 및 지원을 꼽아본다면?</p> <p>(다리) 단소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 우리쪽이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p> <p>타그룹과 나눔 (5명*2그룹(노동)/2그룹(기후), 10분) - 2명이 각각 다른그룹으로, 5명이 서로 활동지 돌려보기</p> <p>전체 성찰 (5분)</p>
4:55~5:55	60	어항 대화 [‘상호이해’]	<p>(질문2개*10명*15분씩=30분씩*2그룹)</p> <p>질문 1.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활동 가운데, 우리가 지금껏 잘해왔거나 현재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 한 가지는?</p> <p>질문 2. 향후 상대쪽과 우리가 더욱 연결되고 활발한 연대를 기대하며, 양쪽이 한마음이었으면 하는 의견이나 사안을 하나 꼽아본다면?</p> <p>전체 성찰 (5분)</p>
5:55~6:00	5	마무리	(감사의 박수)
6:00~7:00	60	저녁식사	(정의로운전환 관련 유튜브 틀어놓기)
7:00~7:30	30	개인 작업 [‘정의로운전환’]	<p>(각자30분), 활동지와 펜 제공)</p> <p>질문 1. 방금 ‘어항대화’를 통해 느낀 것은? 우리쪽 또는 상대쪽에 관해 새롭게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것은?</p> <p>질문 2. 기후위기대응 및 정의로운전환 관련 활동/운동이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 자신 그리고 우리쪽에 필요해 보이는 것은?</p> <p>질문 3. 스스로가 삶에서 ‘전환’(이전과 완전히 결별하고 돌아선)의 주체가 되었던 경험은 언제이고, 이때 어떻게 전환이 가능했는지?</p> <p>질문 4.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노동+기후가 주체가 됨을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이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 보이는 것은?</p>
7:30~8:15	45	외집단 대화	<p>(4명(노동2+기후2)*2질문=30분, 진행순서지 5장)</p> <p>질문 1. 각자 적은 것 질문 1,2번을 돌아가며 나눠주세요.</p> <p>질문 2. 각자 적은 것 질문 3,4번을 돌아가며 나눠주세요.</p> <p>질문 3. 들으면서 느낀 것이나 소감을 돌아가며 나눠주세요.</p> <p>질문 4. 다 나눈 뒤, 각자 포스트잇에 질문 4 자신의 답변을 적어서, 벽에 큰 모자리에 붙여주세요.</p> <p>전체 성찰 – 읽어보고 자리에 앉기/ 스티커 붙이기 (“좋아요”) 진행자가 스티커 많이 붙은 것 읽어주기</p>
8:15~8:30	15	체크아웃	“이번 활동을 마치고 자신에게 남는 것 1가지는?”

13일(금) 오전 9~12시		▷ 제3모듈 - 노동과 기후는 왜 만나야 하는가, 만날 수 있는가 “노동조합/기후시민단체가 서로 만나는 이유”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현 모습 마주하기	
시간	소요	활동	내용
8:30~9:00	30		(사전 짹은 우리들의 활동 모습 슬라이드쇼 진행)
9:00~9:05	5	환영, 소개	그라운드 룰 확인
9:05~9:25	20	체크인	“이름, 지금 컨디션, 여기 오기 전보다 약간 더 희망을 품게 된 것이 있다면?”
9:25~9:50	25	발제	“지금 현황을 바탕으로, 서로 왜 연대해야 하는가?”
9:50~10:40	50	주제별 대화	(키워드 6개*4장씩(6그룹)*질문2=30분) (노동기후연대, 공공재생에너지, 녹색성장, 정의로운전환, 단소세, 기후생태전환, (불평등 문제)) 질문 1. 발제 들은 후, 왜 이 키워드를 짚었나요? (혹은 쓰셨나요?) 질문 2.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점이나 목소리 내고픈 사항이 있다면? (포스트잇에 2가지 구분하여 쓰기) 발제자 코멘트 + 전체 성찰(연대에 필요한 것?) (20분)
10:40~10:50	10	휴식	(키워드 종이 및 포스트잇 벽에 붙이기)
10:50~11:40	50	스펙트럼 대화	질문 0. 1년 365일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좋은날은 언제인지? 질문 1. 현재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23년 31.4% 비중이던 석탄에너지를 15년 뒤 2038년 10.1%로 감축할 계획으로 정부는 24~36년 석탄화력발전소 노후 28기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현재 59기 중 47.5% 비중이다. 정부의 이 정책 속도가 느리다고 보는지 빠르다고 보는지? (숫자 0~10까지 a4 매직펜으로 적기, 앉아서) - 인터뷰 후, 질문 2. 숫자를 다시 적어봅니다. (앉아서 서로 자리 바꾸기)
11:40~11:50	10	체크아웃	오전 세션에 대한 소감 한마디씩?

13일(금) 오후 1~4시		▷ 제4모듈 - 노동과 기후는 어떻게 만나는가 “공동실천 그리고 연대체의 형성”	
시간	소요	활동	내용
모이기 전			(유튜브 영상 틀어놓기)
1:00~1:05	5	환영, 소개	마지막 세션 진행순서 안내
1:05~1:20	15	체크인	“어제오늘 자신에게 축하하고픈 것 또는 누군가에게 감사한 점?”
1:20~1:35	15	활동 안내 ['전환 도시']	“가상 도시 00에 ‘정의로운전환’을 일으키다! 10년 뒤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소그룹 별로 구상해보기” 정보 제공 - 00도시의 현재 모습과, 10년 뒤 희망하는 모습 구상 소그룹 나누기 (4명*5그룹)
1:35~2:35	60	소그룹 작업	00 도시의 현재 모습 & 10년 뒤 모습을 구상한 뒤,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 이미 있는 자원/ 고려해야/전환/결정/연대해야 할 사항 등을 적기
2:35~2:45	10	휴식	(작업물 전지 화이트보드에 붙이기)

2:45-3:15	30	작업물 갤러리 투어	(펜과 포스트잇 지침) 5그룹 작업물을 보면서, 포스트잇에 피드백 및 질문 붙이기 질의응답 및 전체 나눔 (20분)
3:15-3:25	10	평가서 작성	전체 돌아보기 및 평가서 작성 (평가지, 펜) 질문 – ① 이번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나요? ② 좋았던 것과 아쉬웠던 것 ③ 워크숍 참여 이전과 달라진 생각? 새롭게 알게 된 것? ④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면 자신이 기꺼이 해볼 수 있거나 관심 갖고 싶은 것은? ⑤ 동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한다면 “이 워크숍은 000이다”라고 어떤 한 문장으로 설명할 것인지? ⑥ 이다음 심화과정이 있다면 기대되는 것은? ⑦ 그밖에 진행팀에게
3:25-3:50	25	체크아웃	최종 소감 한마디씩?
3:50-4:00	10	마무리	축하와 감사

○ 심화과정 (3모듈/ 총10시간)

첫째날 오후 1 - 5시		▷ 제 1모듈 – 공공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공공재생에너지 현황 및 필요성 확인" “공공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시간	소요	활동	내용
시작 전	60		스크린 – 지난 입문과정 사진자료 슬라이드쇼 보드판(포스트잇) – ‘관계 지도’작성, 지난 입문과정 작업물(‘정의도시 만들기’) 벽 현수막 – 발전소폐지 결정나무(또는 시나리오 예시), 재생에너지 인프라구축, 에너지전환도시 지도, 외국 정의로운전환 사례 등등
1:00-1:10	10	환영 인사, 취지 안내	환영과 감사의 인사, 진행팀 소개 ‘공공재생에너지 확보와 정의로운전환 실현을 위한’심화과정 열게 된 취지 및 목표, 참여에 대한 감사
1:10-1:30	20	체크인	“이름, 지금느낌, 이번 심화과정이 자신에게 갖는 의미”
1:30-1:35	5	그라운드 룰 확인	(기본과정과 동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대의 말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기 경험이나 생각, 느낀 것을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적인 이야기는 비밀로 보호해줍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등한 발언권을 통해 모두의 이야기가 들리도록 노력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빠른 판단을 유보하고, 따사로운 주의집중과 호기심으로 서로를 듣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수”나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환대하며 함께 돌봅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때론 침묵을 신뢰해봅니다.
1:35-2:25	50	기사 함께 읽기	“재생에너지 현황 및 공공성 확보 관련” (A4 2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최신 소식 담긴 기사) - 미리 출력한 기사글 돌아가며 (1단락씩) 소리내어 읽기 - 자신에게 유독 눈에 띄는(‘말을 거는’) 부분/구절 어디인지 돌아가며 1군데 씩 이유 간단히 이야기하기 - 어떤 피드백이나 질의응답 없이, 차례대로 이야기하고 경청하는 데에 초점 전체 나눔 - 모두의 이야기 들은 뒤, 전체와 나누고픈 생각 2-3명 듣기
2:25-2:35	10	휴식	

2:35-3:45	70	월드카페	<p>월드카페 (모조지 3군데/ 3그룹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로, '고려사항' 할수있는 것' 브레인스토밍 (1) 재생에너지 확보 (2) 발전사 공기업 통합 (3) LNG 발전 - 주제별로 테이블에서 안내해줄 호스트 3명 자원자 받기 - 나머지 인원 임의로 3그룹 나누기 - 테이블에, 호스트의 역할 및 진행멘트 안내문 올려놓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제 테이블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제를 안내하고, '고려사항' 할수있는 것'에 관해 떠오른 생각을 자유롭게 적도록 지원합니다. (서로의 말 끝까지 귀 기울이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앞서 다른 그룹이 적고 간 기록을 먼저 간략히 브리핑하고, 이미 적힌 것 외에 추가적 내용을 적도록 안내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떤 판단없이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의견을 깨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호스트는 중립자로서 자신의 의견은 내지 않고, 활동 안내에만 충실하도록 합니다. <p>- 하나의 주제 테이블에 10분 머문 뒤, 종을 울려 다음 테이블로 이동시키기 (모두가 3개 테이블에 10분씩 머물도록 함)</p> <p>- 다시 처음 작업한 테이블에 도착했다면, 같은 순서로 다음 테이블로 또 이동 하며 모조지에 적힌 내용에 간단한 피드백을 적기 (5분 이내씩 3개 테이블 돌기)</p> <p>- 전체가 모든 테이블에 2회씩 머물렀다면, 활동을 마치고 큰 원으로 모여 모조지 3장을 원 가운데 바닥에 놓고 '전체 나눔' 시작하기</p> <p>전체 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조지 기록을 보며,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지? - 기록 가운데, 향후 공공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연대실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쟁점이 될 만한 이슈 몇 개를 추려 (진행자가) 종이에 적은 뒤, 같이 다뤄볼 1주제 투표로 선정하기 (각자 스티커 3개씩 사용해, 다수표 얻은 주제 뽑기)
3:45-3:55	10	휴식	(월드카페 작업물 벽에 부착)
3:55-4:45	50	대화의 4 플레이어	<p>위에 선정한 이슈 다루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하는 입장 1개를 선정해 공유한 뒤, 총 3 입장으로 나누어 앉기 (찬성/ 반대/중립) (*셋중 아무도 없는 입장이 있다면 누구라도 역할자로 그 입장에 서주기를 제안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해당 이슈를 다뤄보는 취지를 살려 모든 입장의 역할을 채운 뒤 진행하기) <p>-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찬성에게) 무엇이 중요해보여서 찬성하시는지 (2.반대에게) 어떤 다른 중요한 것이 있어서 반대하시는지 (3.중립에게) 양쪽이 각각 무엇을 중시하고있는지 & 더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 입장에 추가 질문 : "어떤 새로운 제안이 있는지?" - 제3의 아이디어 제안을 듣고, 최종 엄지투표(또는, 신호등투표) 사용하여 전체 선호도 확인하기 (*엄지투표 : 양손 쌍엄지(대찬성), 한손 엄지(수용가능), 양손 엄지수평(보완필요) 양손 엄지바닥(거부)) (*신호등투표 : 초록종이(찬성/수용), 노란종이(보완필요), 빨간종이(거부)) - '보완필요' '거부' 표현 입장 듣기 :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나요?" "아직 남은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 무엇인가요?" - 의견 듣고 수정보완하여 최종안으로 다시 투표로 확인 - (모두가 수용할 때까지 동의과정 반복하기, 단 'N-1'(끝까지 반대하는 1~2인 끌고가기) 법칙 적용하기)
4:45-5:00	15	체크아웃	"앞서 나눈 내용 관련해, 향후 자신이 기꺼이 시도/실행해볼 수 있는 것은?"
		마무리	축하와 감사의 박수

첫째날 저녁 6시 반 - 8시반		<p>▷ 제 2모듈 –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실현할까 (1)</p> <p>"현장(하청)노동자 증언청취"</p> <p>"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p>	
시간	소요	활동	내용
6:30~6:35	5	환영, 소개	(이번 세션 안내)
6:35~6:50	15	체크인	"정의로운 전환 실현에 관해, 이번 세션에서 서로를 통해 알고 싶은 것 1가지는?"
6:50~7:10	20	현장 다큐 시청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사례, 발전소 하청노동자 증언 영상
7:10~7:50	40	오픈 스페이스	<p>영상 시청 후, 함께 다루고픈 키워드별 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에 자신의 관심 키워드 1개씩 적기 - (예시 제공) 사회안전망확보, 재교육, 폐쇄부지활용, 특별지구선정, 녹색일자리, 하청구조, 정규직-비정규직노조 연대, 민주적 거버넌스조성, 지원센터 등등 - 소속그룹 각자 선정 (중간에 그룹이동 가능) - '토킹피스' 사용하여 라운드 형으로 3 질문에 답하기 (*진행자 배포: 질문1. 해당 키워드에 어떤 관심인지? 질문2. 무엇을 어떻게 해볼 가능성이 보이는지? 질문3. 추가로 나누고픈 이야기나 질문) - 기록자 1명 선정 (포스트잇 1장당 아이디어 1개 적기) - '공동실행 아이디어'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안내
7:50~8:00	10	휴식	
8:00~8:20	20	전체 종합	<p>앞 키워드별 대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리 벽에 부착해놓은 '지역사회 지도' 활용 (*별첨1) (*지역사회 내 에너지산업 관련 여러 인프라나 이해관계 기관/그룹들, 유류부지, 미래에 생길 신생산업/기관 등도 함께 표시) - 지도 내 해당되는 위치에, 앞서 기록한 포스트잇 붙이고, 추가로 아이디어 받아 (그림이나 단어로) 표현해 붙이기
8:20~8:30	10	체크아웃	이번 활동을 마치고, 자신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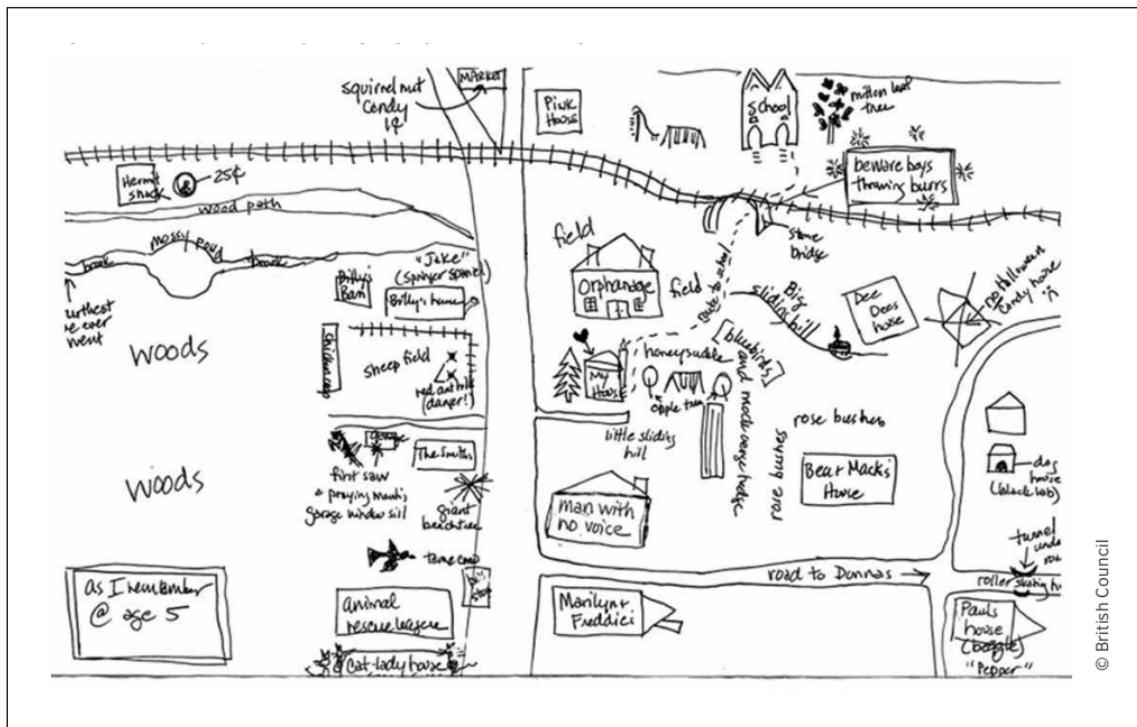
둘째날 오전 9 - 11시		<p>▷ 제 2모듈 –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실현할까 (2)</p> <p>"현장(하청)노동자 증언청취"</p> <p>"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p>	
시간	소요	활동	내용
8:30~9:00	30		(앞서 찍은 우리들의 활동 모습 슬라이드쇼 진행)
9:00~9:05	5	환영, 소개	그라운드 룰 확인
9:05~9:20	15	체크인	"이름, 오늘 아침에 드는 느낌 3가지 꼽는다면?"
9:20~9:45	25	동맹 서클	<p>'정의로운 전환' 실현 관련한 주장/호소 펼치고 동의 확인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주장/호소하고픈 것 1문장씩 생각하기 (시간상, 참여자 일부만(지원자 우선) 주장/호소 가능) - (돌아가며) 주장 후, 함께할 동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같이 구호를 외치거나 박수치기 등의 추가액션 가능) - 동지로 일어나지 않은 분들의 의견 들어보기 (생략 가능) (Q. "본인에게는 어떤 것이 중요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나요?/우리가 좀 더 고려해봤음 하는 지점이 있다면?")

9:45-10:00	15	시간관리 매트릭스	<p>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른 매트릭스 그리기 (벽에 '지역사회 지도' 보면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 작업에서 나온 실행 아이디어들 분류하여, 2×2 행렬표 (x축 '시급성'(몹시 시급함/덜 시급함), y축 '중요성'(매우 중요함/덜 중요함)) 위에 놓기 <p>- 분류 후, '몹시 시급하면서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 확인</p>
10:00-10:10	10	휴식	
10:10-10:50	40	만다라트	<p>아이디어별 소그룹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몹시 시급하면서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 개수대로 그룹 편성 - '만다라트' 표(A3)(*별첨2) 나눠주고, 표 채우기 (최종 목표를 향한 단계적 목표들 설정) - 채운 표를 보면서, 세부 실행 프로세스 및 방식 구상하기 - 완성본 만다라트 벽에 부착 후, 함께 보면 향후 실행 주체 확인하기 (내부 그리고 구체적 외부자원 호명하기) - 모두가 동의하는 실행안(주체 포함) 모자리에 기록
10:50-11:00	10	체크아웃	오전 세션 함께한 동료들에게 감사한 점 1가지씩?

둘째날 오후 1 - 3시		> 제 3모듈 - 공공재생에너지 확충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기후시민단체의 연대 "공공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기후연대 현황 확인" "연대체의 형성 및 공동실천과 공동캠페인 방안"	
시간	소요	활동	내용
모이기 전			(1,2모듈에서 확인된 '실행 아이디어' 모아놓기)
1:00-1:05	5	환영, 소개	마지막 세션 흐름 안내
1:05-1:20	15	체크인	"이름, 지금 컨디션, 공공재생에너지 확충 및 정의로운전환 실현 관련해 축하/감사하고픈 (나 또는) 우리의 기여 1가지씩?"
1:20-1:35	15	엘리베이터 대화	<p>일반 시민들에게 캠페인 메시지 전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당 1분 30초간, 우리의 캠페인 알리기 발언 연습 - 2명씩,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캠페인 메시지 만들어보기 - 3~4그룹 정도만, 총 3가지 방식 가운데 1가지 선택하여 메시지 전달해보기 : (1)(엘리베이터 기다리며) 직접 말 걸기 (2)(엘리베이터 안에서) 두명 대화 (3)(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 가상 통화 (*이때, 진행자는 '일반 시민' 역 할자로 있어줌) - 나머지 그룹 메시지도 마저 들어보기

1:35~2:25	50	연대 시스템 구축	<p>공동실천 및 캠페인 시작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 활동을 참고하여) 향후 함께할 만한 공동실천 및 캠페인 떠올려, 각자 A4 용지에 1가지씩 적어 (팩스 가능) 원 가운데 바닥이나 벽/보드판에 전부 붙이기 스티커 각자 3개씩 받아, '중요하고 시급한' 것에 투표하도록 하여(3군데에 1표씩 또는 1군데에 3표 가능) 득표수대로 3가지 선정 실행 주체로서 각자 희망하는 소그룹에 들어가, '연대 시스템 구축' 질문들에 따라 돌아가며 이야기 (기록하며) <p>질문1. 나 자신이 이 그룹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고, 어떤 점이 중요하고 소중한가?</p> <p>질문2. 이 실천/캠페인의 비전은 (보고싶은 미래는) 무엇인가?</p> <p>질문3. 이 비전을 향해 나 그리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p> <p>질문4. 앞으로 함께해나가는 데에 어떠한 도전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은가? 그럴 때 자신은 무엇을 기꺼이 기여할 수 있는가?</p> <p>질문5. 우리 그룹의 첫 행보는 (작은 시작은) 무엇인가?</p> <p>전체 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별 발표 후, 덧붙이고픈 발언들 들어보기 발표를 마칠 때마다 축하와 격려의 박수와 환호성 보내기 (추가 질문) 우리는 어떻게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2:25~2:35	10	휴식	
2:35~2:45	10	전체 평가	<p>모조지에 각자 포스트잇 적어 같이 확인하기 (모조지에 '해' '바다' '배' '구름' 그림이 그려져 있음) (*별첨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 : 이번 과정에서 느낀것 바다 : 신뢰하게 된 것 배 : 향후 향해를 향해 우리가 지닌 자원들 구름 : 향후 향해 시 도전이 될만한 것
2:45~3:00	15	체크아웃	최종 소감 한마디씩?
		마무리	축하와 감사의 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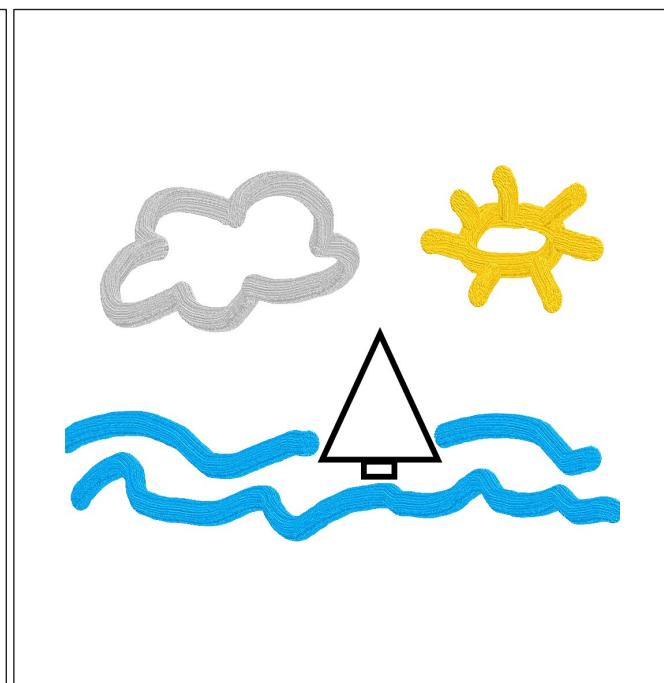
[*별첨1. 지역사회 지도 예시]





[*별첨2. 만다라트 표]

[*별첨3. 전체 평가 모조지]



2. 시설 및 교육 보조재

- 정사각형 중형 강의실과 구내식당이 있는 숙박형 연수원
 - 강의실 내부에는 기둥 및 가운데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참여 인원수의 최소 2배 이상 수용 가능한 강의실 이어야 함
 - 빔 프로젝터, 음향시설
 - 각종 문구류 (매직펜, 펜, A4용지, 모조전지, 포스트잇, 스티커 등)
 - 센터피스, 종, 토킹스틱(피스)
 - 성찰질문이 있는 활동지들
 - 소그룹 라운드 진행 시 보면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소그룹 내 진행지
 - 소그룹 활동 시 필요한 테이블
 - 사전 자료집
 - 벽면 교육용 출력물을 (전지 또는 현수막 사용)

3. 참고 문헌

- 권우현, 2023.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일자리 전환의 주요 과제",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여름호).
- 남태섭, 2024.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토론문", 국회 기본사회 포럼 등 주최,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토론회(9.19).
- 박태주·이정희, 2022.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산업통산자원부, 2023.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1.13).
- 주은경, 2022. 『어른에게도 놀이터가 필요하다』, 궁리.
- 최정임 외, 2024. 『최신 교수·학습 이론 및 방법』, 학지사.

- 다이아나 휘트니 외, 2014. 『조직에서 긍정 혁명을 일으키는 AI Summit』, ORPPPRESS.
- 데이비드 우젤·노라 레첼, 2019, “노동과 자연 사이의 단절 고치기”, 노라 레첼·데이비드 우젤 편, 김현우 역, 『녹색노동조합은 가능하다』, 이매진.
- 오토 샤머 외, 2014. 『본질에서 답을 찾아라』, 티핑포인트
- 프리야 파커/ 방진이 역, 2019. 『모임을 예술로 만드는 법』, 원더박스.

- Ember, 2024. Global Electricity Review 2024(May).
- Kalt, T. 2022. Agents of transition or defenders of the status quo? Trade union strategies in green transitions,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1–23.
- Mayer, B, et al., 2010. Labor–Environmental Coalition Formation: FRaming and the Right to Know, Sociological Forum 25:4.
- Stevis, D. et al., 2018. The labour–nature relationship: Varieties of labour environmentalism, Globalizations 15:4.
- Wilgosh, B. et al., 2022. When two movements collide: Learning from labour and environmental struggles for future Just Transition, Futures 137.
- WMO, 2023. Provisional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3.

주 의

1. 이 보고서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시행한 교육 연구 지원 사업으로 수행된 최종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에서 시행한 교육 연구 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본 연구의 주장이나 제언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